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14.11.7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



주최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국무총리산하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부일정

시간	내용
10:00~10:20	사회: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인사말 -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 노 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0:20~10:40	발제 1 :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실태와 정책현황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40~11:00	발제 2 :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신현옥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11:00~11:10	휴식
11:10~12:10	토론 - 박성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 - 최성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장) -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강은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장) - 채용기 (이천부발중학교 교사) - 박아일린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12:10~12:30	종합토론

인사말씀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4년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중
단추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4년 동안 이 연구를 진행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 혁 원장님,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양계민
박사님과 신현옥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노력과 인내로
좋은 연구 자료집이 출간되었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과 다르게 다문화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정도와 한국 다문화의 미래상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성인이 되는 고등학생들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탈선 증가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게 됩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교육을 마치더라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 빈곤의 악순환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에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향후 아시아에서 브릿지 역할을
담당하는 주역으로 키운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계속 변모할 것이며,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남과 다른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로 다함께 노력해야 하며,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을 장점으로 살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열린 사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다문화 청소년의 미래가 한 층 더 밝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인사말씀



노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시느라 모두들 바쁜신 가운데에도 국회 이자스민의원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른 아침부터 토론을 위해 와주신 토론자 여러분과 포럼을 함께 준비해주신 이자스민의원님과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고 미래 한국사회의 성장동력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 사회적,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필요한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포럼을 개최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사회에 다문화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못지않게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도에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1차 패널을 구축하였고 2014년 현재까지 4년간 종단추적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 및 제시함으로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의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고자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4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올바른 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관계당국, 학계, 현장 등 각계 각 층이 모인 자리인 만큼 다문화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지원을 통해 우리사회에 어떤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지금까지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방향과 과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을 준비한 이자스민의원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Contents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제

/ 1

1.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실태와 정책현황 3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38
신현옥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59

1. 학교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61
박성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
2.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추진방향 64
최성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장)
3.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68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4. 다문화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73
강은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장)
5. 학교 현장의 다문화학생 지원사업의 실태 79
채용기 (이천부발중학교 교사)
6.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83
Aileen C. Park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위원)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실태와 정책현황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¹⁾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만 9세에서 24세의 연령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에 속하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 2조 제 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 3조 및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2조 3호에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출생, 인지, 귀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3. 3. 23). 이 법에 근거해 보면,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크게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정의 이룬 경우, 출생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리고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포함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양계민, 박주희, 2013, p. 27).

그러나 위의 의미는 다소 협의의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청소년을 정의하게 되고,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보다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부모 중 한 쪽이 한국이 아니고 한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하여 외국출신과 재혼을 하게 된 가정의 자녀도 있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재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 후 본국에서 키우던 자녀를 입양의 형식으로

1)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부분은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유과제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보고서의 초안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향후 2014년 본 보고서에 제시될 내용을 포럼을 위하여 활용함.

동반입국하게 되는 소위 중도입국청소년, 부모가 모두 외국출신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난민청소년 등도 모두 다문화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근거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을 '다문화청소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구축한 패널의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국제결혼가정자녀'로 구성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다수가 그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그만큼 다문화가족 자녀의 명칭과 범위도 명확치 않고 따라서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통계자료는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와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현황조사'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데, 두 조사에서 다루는 대상과 명칭이 상이한 측면이 있다. 우선 안전행정부에서는 '외국인주민 자녀'로 칭하고 그 안에 부모가 모두 외국계 주민인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외국계주민인 경우, 그리고 생물학적 부모는 모두 한국인이거나 이혼이나 사별의 이유로 부모가 헤어지고 외국계 주민과 결혼하여 현재 한쪽 부모가 외국계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외국인주민자녀의 수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4년 7월 현재 204,20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학생'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문화학생으로 분류되는 집단은 국내출생자,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이고, 이들 범주에 속하는 '다문화가정학생'은 2014년 현재 67,80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안전행정부에서는 연령을 6세 이하, 7~12세, 13~15세, 16~18세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부 기준으로 볼 때 학령전, 초등, 중등, 고등연령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안전행정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4년 현재 6세 이하의 취학전 연령층이 121,370명(59.4%)으로 가장 많고, 7세에서 12세 사이의 초등학교 연령층이 49,929명(24.4%)으로 다음으로 많으며, 13세에서 15세의 중학교 연령층이 19,929(9.6%), 16세에서 18세 사이의 고등학교 연령이 13,466명(5.8%)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교육부 자료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학전 연령층은 조사되어 있지 않은데, 초등학생이 48,298명으로 전체 학생의 71.2%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생이 12,523명(18.5%), 고등학생이 6,981명(10.3%)으로 나타나(교육부 내부자료, 2014), 안전행정부의 수치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통계의 경우 학교급 별로 집계되어 있고, 대안학교와 같은 특수한 경우 학년이 섞여 있어서 정확한 연령대를 파악할 수 없고, 그 숫자가 소수인 관계로 대안학교의 통계는 제외하였다).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통계의 차이는 교육부의 경우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의 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연령층의 숫자 차이가 큰 것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청소년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차이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1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

단위: 명

연도 인원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안전행정부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교육부(초·중·고재학생)	20,180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67,809

표 2 2012~2014 다문화가족자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연도 부처	안전행정부			교육부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6세 이하	97,078(66.5)	116,696(61.0)	121,370(59.4)	—	—	—
7~12세 (초등학교)	33,969(23.2)	45,156(23.6)	49,929(24.4)	33,792(72.0)	39,430(72.0)	48,298(71.2)
13~15세 (중학교)	10,944(7.5)	18,395(9.6)	19,929(9.6)	9,647(20.5)	11,294(20.2)	12,523(18.5)
16~18세 (고등학교)	4,080(2.8)	11,081(5.8)	13,466(6.6)	3,515(7.5)	5,056(9.1)	6,981(10.3)
전체	146,071(100)	191,328(100)	204,204(100)	46,954(100)	55,780(100)	67,802(100)

자녀의 부모 출신국별 비율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4년 안전행정부 자료와 교육부 자료 모두에서 중국계, 즉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출신이 가장 많다는 점은 공통적이거나 일본과 베트남의 경우 두 자료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부 자료에서는 일본출신 학부모의 비율이 19.5%로 중국출신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안전행정부 자료에서는 8.9%로 집계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는 교육부의 경우는 16.5%이나 안전행정부 자료에서는 26.8%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두 자료 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 자료에는 학령전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이 모두 포함된 자료이고, 또한 시기별로 특정 국가로부터 이주한 결혼이민자가 많아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가 동시에 학교에 입학할 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2014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출신국별 비율

단위: 명(%)

부모출신국	교육부(초·중·고 재학생)		안전행정부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일본	13,226	19.5	18,185	8.9
중국	13,992	20.6	38,824	19.0
조선족	9,340	13.8	43,890	21.5
대만	626	.9	1,892	.9
몽골	1,355	2.0	2,952	1.4
필리핀	9,696	14.3	19,568	9.6
베트남	11,217	16.5	54,737	26.8
태국	1,523	2.2	2,767	1.4
인도네시아	415	.6	755	.4
남부아시아	1,047	1.5	2,558	1.3
중앙아시아	1,351	2.0	3,579	1.8
미국	739	1.1	1,855	.9
러시아	1,094	1.6	1,319	.6
기타	2,188	3.3	11,323	5.5
계	67,809	100.0	204,204	100.0

3)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실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과 적응은 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생활적응을 보고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 다문화청소년들의 부적응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김갑성(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언어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성발달 및 학업습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여러 이유로 학교와 담임과의 거리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성배(2005)의 연구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국어과목이 취약하고, 문장이해력이 떨어지며,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 국어 외에도 사회문화적 배경이 기초가 되는 사회 과목에 대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고, 교우관계 형성이나 발표 등의 수업참여 정도에서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전경숙 외(2007)의 연구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으로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과 숙제를 하는 것을 들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학교에서의 학습능력 중 특히 국어와 관련된 영역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다문화청소년들이 말하기는 일반 아이들과 다름없이 잘하는 데 반하여 받아쓰기나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오연경, 2008)이 많은 연구자와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어머니가 외국출신인 경우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도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언어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되는데(모선희 외, 2008),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언어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취학 전까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지 않으나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자녀의 학습이해력 저하, 학교과제 수행시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고학년이 될수록 어휘력 부족,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한 학습부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이영주, 2007).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두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학교생활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정현영(2006)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보통 이상이며, 학습관련 영역에서의 적응도 보통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일선(2006)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습성취도가 일반아동들과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교사비율이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생활한지 오래 된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학업성취에도 문제가 없으며 어떤 경우는 국사와 국어를 가장

재미있는 과목으로 지적하는 등 매우 적응적으로 기능하고 있다(정병호 외, 2007). 또한 전경숙 외(200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나 따돌림 경험, 고립 및 소외감이 일반가정 청소년들보다 오히려 낮고, 자아만족도와 자아존중감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 은선경(2009)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다문화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특성과 환경특성에 따라 학교생활과 적응의 양상이 매우 달라질 수 있으며, 다문화청소년 전체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개요 및 연구성과²⁾

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필요성

향후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주민자녀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 및 발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의 주류집단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출신국, 외국출신인 부모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의 여부, 경제적 수준, 가족의 지원, 부모의 교육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양한 특성의 아동·청소년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이들을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범주화하고 이들의 부족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결과들을 다수 산출한 결과 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결핍된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한국사회의 통합에 방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생산하여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차이 및 유사점들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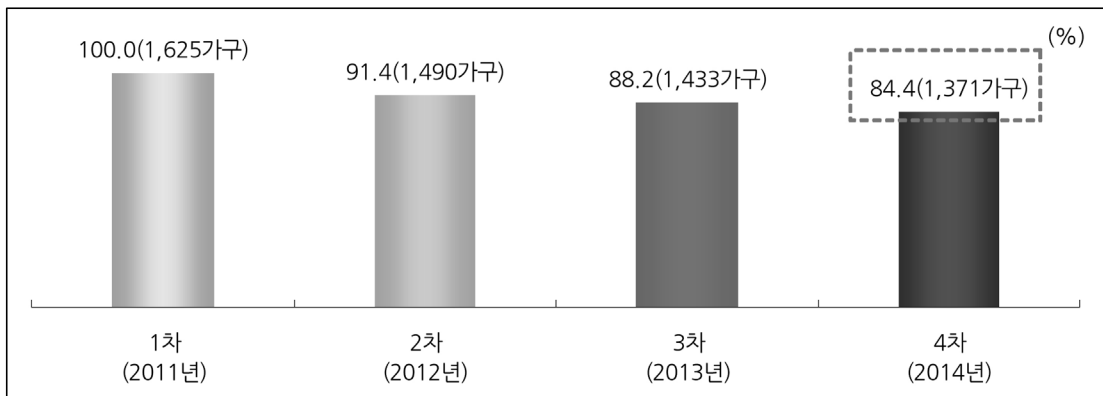
기존에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주로 횡단적인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성장과 변화의 모습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라기보다는 몇몇 변인을 위주로 단편적 특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2) 다문화종단연구의 성과 부분은 2010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의 p. 3~4의 일부를 수정 인용함.

청소년들의 발달 및 성장과정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배경특성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고, 2차적으로는 발달 및 성장과정 속에서 주류집단 청소년들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의 탐색 및 격차 해소방안 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성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는 2010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에서 시작하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의 총 5년 동안 수행되고 있는 연구로, 2010년의 연구는 패널구축을 위한 예비연구였고, 2011년부터 1차 본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현재까지 4년간의 종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생과 그들의 학부모를 포함하여 총 1,625가구를 패널로 구축하였고, 당시 초등 4년생이었던 패널들이 2014년 현재는 중학교 1학년생으로 성장하여 1,371가구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그림 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연도별 조사가구 수(양계민 외, 2014 보고서 초안)

연도별로 핵심적인 주제가 있었고, 주제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와 함의가 도출되었다.

표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종단연구의 연도별 핵심주제 및 결과

년도	핵심주제	결과
2011년도	가정의 배경특성에 따른 발달차이 검증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정 또는 특정국가 출신의 어머니를 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능력, 학교의 성적, 이중문화수용 및 다양한 이중문화경험, 자존감이 나 성취동기와 같은 심리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 적응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 ■ 부모의 배경적 심리적 특성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 어머니의 학교행사 및 활동참여, 아버지의 교육수준 등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차별인식 등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2012년도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	■ 다문화패널 집단은 일반패널 집단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향성이 있음. ■ 다문화패널 집단이 일반패널 집단에 비해 발달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수준별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차이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일반패널과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 ■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며, 다문화패널 집단의 경우 가정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2013년도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양상별 특성 비교	■ 고-고(HA)집단: 일관되게 높은 학교생활적응수준을 보임.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이고 그 외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집단임. ■ 저-고(IM)집단: 처음에는 학교생활수준이 낮았으나 점차 상승. 두 번째로 적응적인 집단임. ■ 고-저(DA)집단: 처음에는 학교생활수준이 높다가 점차 낮아짐 ■ 저-저(LA)집단: 지속적으로 낮은 학교생활적응수준을 보임.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부적응적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결과의 함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은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발달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다문화청소년이 모든 비(非)다문화청소년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집단 간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함의를 지니는데, 하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일괄적 지원 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3년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양상을 종단적으로 비교한 결과, 지속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집단, 처음에는 잘하다가 떨어지는 집단, 처음에는 적응수준이 낮으나 점점 향상되는 집단,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낮은 집단의 총 네 가지 집단이 산출되었고, 각 집단마다 발달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며, 3년 내내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떨어지는 집단은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집단 내 다양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으며, 다양한 발달특성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3.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1) 국가 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정책 현황³⁾

(1)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조의 2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제 1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2012년도에 종결되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간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계획으로 활용된다.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목표는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으로 총 86개의 정책과제가 여섯 가지 하위 과제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관련되는 과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영역의 다섯 가지 중점과제와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의 네 가지 중점과제라고 볼 수 있다. 각 사업별로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담당

3) 국가 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정책현황은 201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유과제인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의 p. 239~265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함.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이다. 다루고 있는 영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중언어교육 및 한국어교육과 같은 언어교육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학교입학 등 공교육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또 한 부분이며, 일반청소년 대상의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이 또 하나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덜 강조된 경향이 있다.

표 5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다문화청소년관련 계획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명
2-1.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1-1. 건강정보문해력 향상	다문화 가족	◦ 기본적인 건강정보에 대한 문해력 향상 방안 실시 ◦ 다문화가정 건강검진 통번역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2-1-2.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	◦ 언어발달 진단→언어교육→진전평가' 를 통해 언 어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2-1-3.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	◦ 이중언어 강사 양성 체계화(전담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 심화과정 신설) ◦ 기초 모국어 교재 보급 ◦ 다문화 이해교육 지도서 개발·보급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언어영재교실사업	여성가족부 교육부
	2-1-4.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지원	다문화 가족	◦ 생애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의 양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제공 ◦ 다문화학부모 설명회, 간담회 개최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 학부모모임 활성화 ◦ 글로벌 맘스 운영 ◦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다문화 이해하기 자료 제작 및 보급	여성가족부 교육부
2-2. 한국어 능력 향상	2-2-1.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공유	다문화 가족자녀	◦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인터넷 공유	문화체육관광부
	2-2-2. 다문화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이주배경 청소년	◦ 한국어교육과정(KSL) 운영 ◦ KSL 표준교재 및 진단도구 개발 ◦ KSL 방송콘텐츠 개발 ◦ KSL 연구학교 운영 ◦ 특별학급과 일반학급에서의 교차 학습 ◦ 방과후학교 활용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표 5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다문화청소년관련 계획(계속)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명
2-3. 학교 생활 초기 적응 지원	2-3-1. 초등학교 입학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다문화 가족자녀	- 초등학교 이하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확대 -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2-3-2. 예비학교 전국운영	다문화 청소년	- 학력인정 대안학교 확대(4개교) - 예비학교 확대(50개교)	교육부
	2-3-3.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2-3-4. 초기적응프로그램 Rainbow School운영	이주배경 청소년	Rainbow School 확대	여성가족부
2-4. 기초 학력 향상 및 진학 지도 강화	2-4-1.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다문화 가족자녀	- 학부모교육서비스 - 기존의 글로벌선도학교, 다문화 연구학교, 예비학교를 글로벌선도학교(연구형, 예비형, 거점형, 집중형)으로 통합하여 다문화 친화적 학교 구축 - 교사, 또래,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운영 및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 교육부
	2-4-2. 진로 · 진학지도강화	다문화 가족자녀	- 글로벌 브릿지 사업 운영 - 다문화 직업교육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대학 진학 기회 확대(사회적 배경대상자 전형에 다문화학생 포함, 재직자 특별전형에 다문화학생 선발 권장)	교육부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2-5-1. 입학절차 안내 및 학교 진입 유도	다문화 가족자녀	- 전담 코디네이터 및 입학절차 안내 자료('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배치 -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 다문화 친화적 정규학교 배정 -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 - 시도교육청 다문화전담직원 역량강화	교육부 법무부
	2-5-2. 각종 위원회 등에 다문화가족 청소년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다문화 가족자녀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국제교류 등의 일정 비율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여성가족부
	2-5-3.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복지 포함	이주배경 청소년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가 포함되도록 재구조화 방안 모색	여성가족부

표 5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다문화청소년관련 계획(계속)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명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4-1. 일반학생-다문화 학생 간 상호 이해 교육 강화	일반 청소년	- 다문화 이해활동 지원 강화 - 다문화 교육주간 실시	교육부
	5-4-2. 다문화 교육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	일반 청소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에 '다문화교육' 내용 반영 교과서와 지도서 개발 및 보급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5-4-3.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 및 쌍방향 교류·체험 기회 확대	일반 청소년	- 학교에서 활용가능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 문화다양성 교구재 '다문화꾸러미' 활용을 통한 쌍방향 교류·체험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5-4-4. 교원의 다문화 이해 역량 강화	다문화 담당교원	- 다문화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 발간 - 교원 연수과정 체계화·의무화 - 학교관리자 다문화교육 의무적 이수 추진 - 신규교사 직무연수에 '다문화교육' 포함 - 교·사범대에 다문화 이해 강좌 운영	교육부

(2) 제 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⁴⁾

제 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다문화청소년 관련 내용은 반드시 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한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 청소년 전체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 청소년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곧 사회 전반의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는 일이 되고, 나아가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글로벌다문화역량강화의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의 '글로벌다문화역량강화'영역에서는 주로 일반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증진사업과 국제교류사업, 한민족네트워크 사업, 남북한청소년 교류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반 청소년의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3-1의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영역 중 '3-1-1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는 다문화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한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다문화가족 통합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부모자녀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언어교육,

4) 제 5차 청소년 기본계획은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유과제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보고서의 초안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향후 2014년 본 보고서에 제시될 내용을 포럼을 위하여 활용함.

다문화자녀생활지원서비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력증진프로그램 지원 확대, 각종 청소년 주도적 위원회 및 회의에 다문화청소년의 일정비율을 포함시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3-1-2.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는 이주배경청소년 종하지원체계 확립, 다문화가정 학생 제도교육 지원 강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비진학 및 탈학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권리침해 보호를 위한 불법근로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전문상담서비스, 병영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은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은 아직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다문화관련 계획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명
1-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1-2-1.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일반 청소년	-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수련시설 등에 보급·운영 -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1-2-2. 다문화프로젝트 추진	이주배경 청소년	- 국가 간 교류, 지자체 교류, 기관 및 단체 국제 교류 시 이주배경 청소년 인력을 활용하여 외부 인사 영접 및 통역 등의 역할 수행 -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풀 관리 운영 모델 개발	여성가족부
	1-2-3.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일반 청소년, 해외한인 청소년	-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테마형 해외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국제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중·일 청소년간 교류 강화 등 추진) - 해외 한인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및 아동·청소년 지원 협력 - 해외한인청소년과 한국아동·청소년과의 교류 활성화 - 해외 한인 아동·청소년에게 모국 문화 및 모국어 지원 사업 추진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1-2-4.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일반 청소년	-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보편적 국제교류 사업 추진 -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 및 연령별·수준별·국가별 특성에 맞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교류센터」 조직 및 기능 확대 - 청소년 국제교류 사후관리 강화 및 성과활용 시스템 구축 - 저개발 국가 청소년들을 위한 개발협력(ODA) 확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1-2-5.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	일반 청소년	- 남북공동 청소년 현황조사 및 「북한 바로 알기」 교육 실시 - 남북한 청소년 대표단 상호 교환 방문, 남북한 청소년분야 대표자 회의 정례회	통일부

표 6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다문화관련 계획(계속)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명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3-1-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 원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실시(다문화 이해 교육, 가족 교육, 부모자녀 교육 등) ◦ 이중언어교육 강화(이중언어강사 양성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지원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국제교류 등에 일정 비율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여성가족부, 교육부
	3-1-2.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 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 응 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 이주배경청소년 종합 지원체계 확립 ◦ 다문화가정 학생 제도교육 진입지원 강화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비진학 및 탈학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 이주배경 청소년의 권리침해 보호를 위해 불법근로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 이주배경 청소년 입영연령 도달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국방부

2)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분석: 지자체,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⁵⁾

다음은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사업별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자료는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자료는 빠져있고, 작성에 대한 약간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일부 누락된 자료들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전국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계획인원과 참여인원이 지자체나

5)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부분은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유과제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보고서의 초안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향후 2014년 본 보고서에 제시될 내용을 포럼을 위하여 활용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아마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 중요하게 다루는 사업이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일반인 대상의 인식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 수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 총 계획인원 및 총 참여인원 단위: 명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	2014	소계	2013	2014	소계	2013	2014	소계
총 계획인원	39,487	46,071	85,558	1,791,169	1,157,297	2,948,466	102,426	78,839	181,265
총 참여인원	33,616	34,752	68,368	1,694,610	1,130,396	2,825,006	124,025	76,772	200,797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예산을 국비, 지방비, 민간 등 다양한 재원별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는 지방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교육청 역시 지방비의 비율이 높았으나 국비도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편이었고,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원별 예산총액(2013~2014)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	2014	소계	2013	2014	소계	2013	2014	소계
국비	5.54	10.84	16.38	6,554.00	6,063.40	12,617.40	301.94	222.86	524.80
지방비	2,441.02	2,530.58	4,971.60	16,393.45	19,319.93	35,713.35	1,260.98	1,249.35	2,510.33
민간	724.27	878.93	1,603.20	38.00	32.00	70.00	858.27	921.32	1,779.59
기타	-	-	-	-	-	-	36.86	183.36	220.22
총액	3,170.89	3,420.41	6,591.3	22,985.45	25,415.33	48,400.78	2,458.05	2,576.89	5,034.94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예산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중 많은 비율이 비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2013년 사업의 경우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사업의 40.8%는 비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나머지 59.2%만이 국비 또는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었다(민간과 기타는 제외함). 2014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1.1%가 비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이 상당부분 지역의 민간단체나 기업과 연계하여 비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 9 다문화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의 재원: 전체

단위: 사업수(%)

구분	2013 빈도(%)	구분	빈도(%)
비예산	496(40.8)	비예산	462(41.1)
국비 + 지방비	721(59.2)	국비 + 지방비	662(58.9)
합 계	1,217(100)	합 계	1,124(100)

각 기관별 사업의 평균 사업수행 개월 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청 사업의 수행기간이 길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들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 1개월 단위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1개월 이내의 사업들은 주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과 같은 행사성 프로그램이었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은 24개월 간 진행된 KSL(한국어 교육과정)프로그램이었다. 교육청의 경우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이나 다문화이해교육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주로 수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평균 사업수행 개월 수

평균(표준편차)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F
2013	6.37(4.47)b	9.28(3.98)a	5.11(4.19)c	98.12***
2014	6.22(4.34)b	8.53(3.95)a	5.69(4.08)b	43.33***

***p<.001, Duncan: a)b)c

각 사업별로 다문화청소년을 선별해서 수행했는지, 일반 청소년들과 함께 통합하여 수행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선별적 프로그램이 많았으나 특히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문화청소년만을 선별하여 수행한 프로그램이었고, 교육청의 경우 선별프로그램의 비율이 지자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교육청의 사업에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이 큰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대상이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 프로그램별 다문화청소년 선별 여부

빈도(퍼센트)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선 별	198(85.7)	218(86.2)	168(63.4)	159(65.2)	626(88.9)	510(83.6)
통 합	38(16.5)	39(15.4)	120(45.3)	107(43.9)	122(17.3)	148(24.3)
전 체	231(100)	253(100)	265(100)	244(100)	704(100)	610(100)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대상을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지자체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았고, 그 외 중도입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대상 사업들이 있었다. 이에 비해 교육청의 사업들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이 많은 사업의 대상이었으나 그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이 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지자체와 비슷한 양상으로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 일반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의 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1개에서 많아야 3개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자 (중복응답)

단위: 사업수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195(84.1)	212(83.8)	183(66.8)	162(64.0)	582(82.3)	505(82.5)
중도입국 청소년	46(19.8)	66(26.1)	186(67.9)	170(67.2)	114(16.1)	132(21.6)
일반 청소년	43(18.5)	45(17.8)	104(38.0)	90(35.6)	134(19.0)	146(23.9)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	95(40.9)	93(36.8)	92(33.6)	83(32.8)	274(38.8)	193(31.5)
학교교사	5(2.2)	8(3.2)	75(27.4)	62(24.5)	20(2.8)	18(2.9)
청소년지도자	1(.4)	3(1.2)	2(.7)	3(1.2)	3(.4)	3(.5)
기타	6(2.6)	6(2.4)	21(7.7)	30(11.9)	27(3.8)	34(5.6)
전체	232	253	274	253	707	612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각 기관별 사업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사업을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었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수행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센터 모두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과 고등학생 대상을 프로그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점차 높은 연령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13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별 대상연령(중복응답)**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미취학아동	97(41.8)	91(36.0)	23(8.4)	22(8.8)	323(45.7)	253(41.3)
초등학생	204(87.9)	218(86.2)	204(74.5)	185(73.7)	574(81.2)	501(81.7)
중학생	67(28.9)	95(37.5)	165(60.2)	155(61.8)	180(25.5)	191(31.2)
고등학생	48(20.7)	68(26.9)	125(45.6)	121(48.2)	87(12.3)	87(14.2)
대학생	11(4.7)	17(6.7)	11(4.0)	18(7.2)	29(4.1)	20(3.3)
성인	66(28.4)	76(30.0)	102(37.2)	98(39.0)	232(32.8)	161(26.3)
기타	-	-	-	-	3(.4)	1(.2)
전체	232	253	274	251	707	613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다음으로 각 기관별로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장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교육청은 다문화인식개선사업과 이중언어, 멘토링, 글로벌선도학교,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 소수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각 기관별 사업이 대상별로 어떻게 분포되는지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4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종류: 전체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물적지원(경제적, 물적지원)	10(4.3)	14(5.5)	2(.7)	1(.4)	20(2.8)	18(2.9)	32(2.6)	33(2.9)
체험활동(공연, 답사 등)	24(10.3)	27(10.7)	3(1.1)	2(.8)	72(10.2)	51(8.3)	99(8.1)	80(7.1)
엄마나라방문, 초청 및 교류	4(1.7)	6(2.4)	4(1.4)	1(.4)	3(.4)	5(.8)	11(.9)	12(1.1)
캠프	16(6.9)	12(4.7)	4(1.4)	1(.4)	39(5.5)	26(4.2)	59(4.8)	39(3.5)
특기적성교육	16(6.9)	17(6.7)	2(.7)	4(1.6)	84(11.9)	73(11.9)	102(8.4)	94(8.4)
독서프로그램	8(3.4)	8(3.2)	1(.4)	1(.4)	21(3.0)	22(3.6)	30(2.5)	31(2.8)
인재양성 및 글로벌역량강화	2(.9)	1(.4)	4(1.4)	8(3.1)	5(.7)	2(.3)	11(.9)	11(1.0)
학습지원	21(9.1)	25(9.9)	6(2.2)	7(2.8)	55(7.8)	59(9.6)	82(6.7)	91(8.1)
심리적응프로그램	9(3.9)	9(3.6)	3(1.1)	2(.8)	26(3.7)	18(2.9)	38(3.1)	29(2.6)
다문화인식개선	13(5.6)	20(7.9)	33(11.9)	31(12.2)	62(8.8)	61(10.0)	108(8.9)	112(10.0)
기타 교육(경제, 건강, 인문 등)	6(2.6)	6(2.4)	-	-	14(2.0)	17(2.8)	20(1.6)	23(2.1)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지원	4(1.7)	8(3.2)	7(2.5)	7(2.8)	11(1.6)	15(2.4)	22(1.8)	30(2.7)
주말통합프로그램	4(1.7)	1(.4)	-	-	16(2.3)	9(1.5)	20(1.6)	10(.9)
진로 및 직업교육	3(1.3)	6(2.4)	6(2.2)	8(3.1)	7(1.0)	11(1.8)	16(1.3)	25(2.2)
멘토링	16(6.9)	25(9.9)	20(7.2)	25(9.8)	53(7.5)	59(9.6)	89(7.3)	109(9.7)
이중언어	6(2.6)	9(3.6)	24(8.6)	20(7.9)	23(3.3)	19(3.1)	53(4.4)	48(4.3)
한국어	7(3.0)	5(2.0)	9(3.2)	7(2.8)	9(1.3)	12(2.0)	25(2.1)	24(2.1)
다문화 축제 및 행사	5(2.2)	5(2.0)	4(1.4)	2(.8)	19(2.7)	10(1.6)	28(2.3)	17(1.5)
각종센터운영	1(.4)	1(.4)	5(1.8)	9(3.5)	-	-	6(.5)	10(.9)
글로벌선도학교,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	-	-	56(20.1)	52(20.5)	-	-	56(4.6)	52(4.6)
부모자녀관계	17(7.3)	17(6.7)	-	-	74(10.5)	53(8.6)	91(7.5)	70(6.2)
부모교육	25(10.8)	20(7.9)	7(2.5)	10(3.9)	74(10.5)	45(7.3)	106(8.7)	75(6.7)
학부모동아리지원	-	1(.4)	15(5.4)	14(5.5)	-	1(.2)	15(1.2)	16(1.4)
취학지원(설명회, 예비과정운영 등)	-	-	11(4.0)	3(1.2)	-	-	11(.9)	3(.3)
홈페이지구축 및 소식지 발간	-	-	6(2.2)	3(1.2)	-	-	6(.5)	3(.3)
교원연수	-	-	22(7.9)	18(7.1)	-	-	22(1.8)	18(1.6)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	-	8(2.9)	4(1.6)	-	-	8(.7)	4(.4)
지역네트워크 및 연계	1(.4)	-	5(1.8)	7(2.8)	-	-	6(.5)	7(.6)
봉사활동	2(.9)	1(.4)	1(.4)	1(.4)	7(1.0)	13(2.1)	10(.8)	15(1.3)
기타	12(5.2)	9(3.6)	10(3.6)	6(2.4)	13(1.8)	14(2.3)	35(2.9)	29(2.6)
전체	232(100)	253(100)	278(100)	254(100)	707(100)	613(100)	1,217(100)	1,120(100)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표 15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종류: 초등학생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물적지원(경제적, 물적지원)	10(4.9)	13(6.0)	2(1.0)	1(.5)	17(3.0)	14(2.8)	29(3.0)	28(3.1)
체험활동(공연, 답사 등)	24(11.8)	21(9.6)	3(1.5)	2(1.1)	69(12.0)	47(9.4)	96(9.8)	70(7.7)
엄마나라방문, 초청 및 교류	4(2.0)	4(1.8)	4(2.0)	1(.5)	1(.2)	3(.6)	9(.9)	8(.9)
캠프	16(7.8)	12(5.5)	4(2.0)	1(.5)	37(6.4)	25(5.0)	57(5.8)	38(4.2)
특기적성교육	16(7.8)	17(7.8)	2(1.0)	4(2.2)	78(13.6)	71(14.2)	96(9.8)	92(10.2)
독서프로그램	7(3.4)	7(3.2)	1(.5)	1(.5)	17(3.0)	17(3.4)	25(2.5)	25(2.8)
인재양성 및 글로벌역량강화	2(1.0)	1(.5)	4(2.0)	8(4.3)	5(.9)	2(.4)	11(1.1)	11(1.2)
학습지원	20(9.8)	24(11.0)	6(2.9)	6(3.2)	51(8.9)	50(10.0)	77(7.8)	80(8.8)
심리적응프로그램	8(3.9)	9(4.1)	3(1.5)	2(1.1)	21(3.7)	17(3.4)	32(3.3)	28(3.1)
다문화인식개선	11(5.4)	15(6.9)	21(10.3)	20(10.8)	51(8.9)	49(9.8)	83(8.5)	84(9.3)
기타 교육(경제, 건강, 인문 등)	5(2.5)	3(1.4)	-	-	9(1.6)	10(2.0)	14(1.4)	13(1.4)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지원	4(2.0)	7(3.2)	7(3.4)	7(3.8)	5(.9)	9(1.8)	16(1.6)	23(2.5)
주말통합프로그램	4(2.0)	1(.5)	-	-	16(2.8)	8(1.6)	20(2.0)	9(1.0)
진로 및 직업교육	3(1.5)	5(2.3)	-	2(1.1)	6(1.0)	7(1.4)	9(.9)	14(1.5)
멘토링	14(6.9)	23(10.6)	20(9.8)	25(13.5)	52(9.1)	58(11.6)	86(8.8)	106(11.7)
이중언어	6(2.9)	9(4.1)	17(8.3)	14(7.6)	19(3.3)	18(3.6)	42(4.3)	41(4.5)
한국어	5(2.5)	4(1.8)	7(3.4)	4(2.2)	2(.3)	2(.4)	14(1.4)	10(1.1)
다문화 축제 및 행사	5(2.5)	4(1.8)	4(2.0)	2(1.1)	18(3.1)	8(1.6)	27(2.7)	14(1.5)
각종센터운영	1(.5)	1(.5)	5(2.5)	9(4.9)	-	-	6(.6)	10(1.1)
글로벌선도학교,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	-	-	54(26.5)	50(27.0)	-	-	54(5.5)	50(5.5)
부모자녀관계	15(7.4)	16(7.3)	-	-	62(10.8)	44(8.8)	77(7.8)	60(6.6)
부모교육	10(4.9)	12(5.5)	3(1.5)	2(1.1)	22(3.8)	20(4.0)	35(3.6)	34(3.8)
학부모동아리지원	-	-	6(2.9)	4(2.2)	-	-	6(.6)	4(.4)
취학지원(설명회, 예비과정운영 등)	-	-	5(2.5)	2(1.1)	-	-	5(.5)	2(.2)
홈페이지구축 및 소식지 발간	-	-	5(2.5)	2(1.1)	-	-	5(.5)	2(.2)
교원연수	-	-	3(1.5)	4(2.2)	-	-	3(.3)	4(.4)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	-	7(3.4)	3(1.6)	-	-	7(.7)	3(.3)
지역네트워크 및 연계	1(.5)	-	2(1.0)	3(1.6)	-	-	3(.3)	3(.3)
봉사활동	2(1.0)	1(.5)	-	-	6(1.0)	11(2.2)	8(.8)	12(1.3)
기타	11(5.4)	9(4.1)	9(4.4)	6(3.2)	10(1.7)	11(2.2)	30(3.1)	26(2.9)
전체	204(100)	218(100)	204(100)	185(100)	574(100)	501(100)	982(100)	904(100)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표 16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종류: 중학생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물적지원(경제적, 물적지원)	6(9.0)	8(8.4)	2(1.2)	1(.6)	6(3.3)	12(6.3)	14(3.4)	21(4.8)
체험활동(공연, 답사 등)	8(11.9)	12(12.6)	3(1.8)	2(1.3)	16(8.9)	18(9.4)	27(6.6)	32(7.3)
엄마나라방문, 초청 및 교류	2(3.0)	3(3.2)	4(2.4)	1(.6)	1(.6)	2(1.0)	7(1.7)	6(1.4)
캠프	3(4.5)	7(7.4)	4(2.4)	1(.6)	12(6.7)	12(6.3)	19(4.6)	20(4.5)
특기적성교육	2(3.0)	4(4.2)	1(.6)	1(.6)	14(7.8)	16(8.4)	17(4.1)	21(4.8)
독서프로그램	3(4.5)	2(2.1)	-	1(.6)	3(1.7)	4(2.1)	6(1.5)	7(1.6)
인재양성 및 글로벌역량강화	2(3.0)	-	4(2.4)	8(5.2)	1(.6)	-	7(1.7)	8(1.8)
학습지원	6(9.0)	7(7.4)	3(1.8)	3(1.9)	11(6.1)	10(5.2)	20(4.9)	20(4.5)
심리적응프로그램	2(3.0)	3(3.2)	3(1.8)	2(1.3)	9(5.0)	7(3.7)	14(3.4)	12(2.7)
다문화인식개선	5(7.5)	7(7.4)	19(11.5)	17(11.0)	30(16.7)	28(14.7)	54(13.1)	52(11.8)
기타 교육(경제, 건강, 인문 등)	2(3.0)	2(2.1)	-	-	4(2.2)	2(1.0)	6(1.5)	4(.9)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지원	2(3.0)	6(6.3)	7(4.2)	7(4.5)	10(5.6)	13(6.8)	19(4.6)	26(5.9)
주말통합프로그램	-	-	-	-	2(1.1)	2(1.0)	2(.5)	2(.5)
진로 및 직업교육	1(1.5)	3(3.2)	3(1.8)	5(3.2)	1(.6)	7(3.7)	5(1.2)	15(3.4)
멘토링	6(9.0)	10(10.5)	18(10.9)	24(15.5)	23(12.8)	22(11.5)	47(11.4)	56(12.7)
이중언어	1(1.5)	1(1.1)	12(7.3)	13(8.4)	4(2.2)	2(1.0)	17(4.1)	16(3.6)
한국어	3(4.5)	3(3.2)	4(2.4)	2(1.3)	2(1.1)	5(2.6)	9(2.2)	10(2.3)
다문화 축제 및 행사	2(3.0)	3(3.2)	4(2.4)	2(1.3)	8(4.4)	4(2.1)	14(3.4)	9(2.0)
각종센터운영	1(1.5)	1(1.1)	4(2.4)	8(5.2)	-	-	5(1.2)	9(2.0)
글로벌선도학교,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	-	-	36(21.8)	36(23.2)	-	-	36(8.7)	36(8.2)
부모자녀관계	1(1.5)	4(4.2)	-	-	8(4.4)	5(2.6)	9(2.2)	9(2.0)
부모교육	6(9.0)	7(7.4)	3(1.8)	2(1.3)	10(5.6)	11(5.8)	19(4.6)	20(4.5)
학부모동아리지원	-	-	3(1.8)	3(1.9)	-	-	3(.7)	3(.7)
취학지원(설명회, 예비과정운영 등)	-	-	6(3.6)	2(1.3)	-	-	6(1.5)	2(.5)
홈페이지구축 및 소식지 발간	-	-	4(2.4)	2(1.3)	-	-	4(1.0)	2(.5)
교원연수	-	-	3(1.8)	4(2.6)	-	-	3(.7)	4(.9)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	-	7(4.2)	3(1.9)	-	-	7(1.7)	3(.7)
지역네트워크 및 연계	1(1.5)	-	-	1(.6)	-	-	1(.2)	1(.2)
봉사활동	-	-	-	-	2(1.1)	6(3.1)	2(.5)	6(1.4)
기타	2(3.0)	2(2.1)	8(4.8)	4(2.6)	3(1.7)	3(1.6)	13(3.2)	9(2.0)
전체	67(100)	95(100)	165(100)	155(100)	180(100)	191(100)	412(100)	441(100)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표 17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종류: 고등학생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물적지원(경제적, 물적지원)	6(12.5)	8(11.8)	2(1.6)	1(.8)	5(5.7)	7(8.0)	13(5.0)	16(5.8)
체험활동(공연, 답사 등)	5(10.4)	8(11.8)	1(.8)	1(.8)	5(5.7)	9(10.3)	11(4.2)	18(6.5)
엄마나라방문, 초청 및 교류	3(6.2)	3(4.4)	3(2.4)	1(.8)	1(1.1)	2(2.3)	7(2.7)	6(2.2)
캠프	3(6.2)	3(4.4)	3(2.4)	1(.8)	3(3.4)	4(4.6)	9(3.5)	8(2.9)
특기적성교육	-	2(2.9)	-	-	5(5.7)	3(3.4)	5(1.9)	5(1.8)
독서프로그램	2(4.2)	1(1.5)	-	-	2(2.3)	2(2.3)	4(1.5)	3(1.1)
인재양성 및 글로벌역량강화	-	-	3(2.4)	5(4.1)	-	-	3(1.2)	5(1.8)
학습지원	3(6.2)	4(5.9)	2(1.6)	2(1.7)	2(2.3)	2(2.3)	7(2.7)	8(2.9)
심리적응프로그램	1(2.1)	2(2.9)	3(2.4)	2(1.7)	6(6.9)	2(2.3)	10(3.8)	6(2.2)
다문화인식개선	5(10.4)	7(10.3)	13(10.4)	14(11.6)	18(20.7)	17(19.5)	36(13.8)	38(13.8)
기타 교육(경제, 건강, 인문 등)	-	2(2.9)	-	-	-	1(1.1)	-	3(1.1)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지원	2(4.2)	5(7.4)	6(4.8)	7(5.8)	9(10.3)	11(12.6)	17(6.5)	23(8.3)
주말통합프로그램	-	-	-	-	1(1.1)	-	1(.4)	-
진로 및 직업교육	-	2(2.9)	5(4.0)	7(5.8)	-	3(3.4)	5(1.9)	12(4.3)
멘토링	4(8.3)	4(5.9)	16(12.8)	21(17.4)	6(6.9)	7(8.0)	26(10.0)	32(11.6)
이중언어	1(2.1)	1(1.5)	9(7.2)	8(6.6)	1(1.1)	-	11(4.2)	9(3.3)
한국어	3(6.2)	3(4.4)	3(2.4)	2(1.7)	1(1.1)	1(1.1)	7(2.7)	6(2.2)
다문화 축제 및 행사	1(2.1)	3(4.4)	4(3.2)	2(1.7)	6(6.9)	3(3.4)	11(4.2)	8(2.9)
각종센터운영	1(2.1)	1(1.5)	4(3.2)	8(6.6)	-	-	5(1.9)	9(3.3)
글로벌선도학교,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	-	-	19(15.2)	19(15.7)	-	-	19(7.3)	19(6.9)
부모자녀관계	1(2.1)	2(2.9)	-	-	5(5.7)	2(2.3)	6(2.3)	4(1.4)
부모교육	6(12.5)	5(7.4)	3(2.4)	2(1.7)	7(8.0)	6(6.9)	16(6.2)	13(4.7)
학부모동아리지원	-	-	3(2.4)	3(2.5)	-	-	3(1.2)	3(1.1)
취학지원(설명회, 예비과정운영 등)	-	-	1(.8)	-	-	-	1(.4)	-
홈페이지구축 및 소식지 발간	-	-	4(3.2)	2(1.7)	-	-	4(1.5)	2(.7)
교원연수	-	-	3(2.4)	4(3.3)	-	-	3(1.2)	4(1.4)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	-	7(5.6)	3(2.5)	-	-	7(2.7)	3(1.1)
지역네트워크 및 연계	-	-	-	1(.8)	-	-	-	1(.4)
봉사활동	-	-	1(.8)	1(.8)	2(2.3)	4(4.6)	3(1.2)	5(1.8)
기타	1(2.1)	2(2.9)	7(5.6)	4(3.3)	2(2.3)	1(1.1)	10(3.8)	7(2.5)
전체	48(100)	68(100)	125(100)	121(100)	87(100)	87(100)	260(100)	276(100)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내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은 주로 국내에서 출생한 초등학생을 선별적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비예산 사업도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다문화청소년의 정책요구분석⁶⁾

1) 설문조사 결과

(1) 학교 다문화정책 유무에 따른 차이

본 연구에서 패널에 포함된 청소년들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있는지 영역별로 질문하고, 그러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유무에 따라 해당 학교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수준이 다른지를 비교하였다. 질문은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학교 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자체 지원계획이 있는지’, ‘다문화전담교사가 있는지’,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지’ 등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청소년의 성취동기, 학교성적,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진로의식, 교사지지, 친구지지,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사회적 위축, 비행,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등 총 17개 변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7개 중 차이가 나는 변인은 한 두 개에 불과하고, 특히 다문화전담교사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8 학교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유무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차이

교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결과
다문화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 여부	■ 다문화학생 지원프로그램이 없는 학교 학생의 학교 성적이 오히려 더 높음 ■ 나머지는 모두 차이 없음
학교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자체 지원계획 유무	■ 다문화학생 지원 자체 지원계획이 있는 학교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높음 ■ 나머지는 모두 차이 없음
다문화전담교사 유무	■ 전담교사 유무에 따라 차이 나는 변인 없음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을 실시여부	■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한 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중 교사관계, 신체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위축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는 모두 차이 없음.

6) 다문화청소년의 정책적 요구분석의 부분은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유과제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보고서의 초안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향후 2014년 본 보고서에 제시될 내용을 포럼을 위하여 활용함.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전체 학생 대상의 다문화교육을 실시한 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 중 교사관계와 신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고,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따라서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의 강화 및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때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그 내용의 타당성이 검토된 후 체계적 교육 및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및 요구

① 청소년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나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화체험, 방과후 수업료 지원, 대학생멘토링, 급식비지원 등이 많았다.

표 19 학교나 기관에서 받은 지원 내용: 청소년

(중복응답)

구분	2012	2013	2014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441(18.3)	260(16.0)	105(11.9)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396(16.4)	287(17.7)	152(17.3)
대학생 멘토링	318(13.2)	226(13.9)	144(16.4)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299(12.4)	175(10.8)	84(9.6)
놀이공원 방문	238(9.9)	131(8.1)	43(4.9)
급식비 지원	160(6.6)	141(8.7)	112(12.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129(5.4)	77(4.7)	38(4.3)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123(5.1)	102(6.3)	47(5.3)
학습지 지원	104(4.3)	58(3.6)	27(3.1)
심리적응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52(2.2)	50(3.1)	31(3.5)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52(2.2)	26(1.6)	11(1.3)
이중언어교실	34(1.4)	36(2.2)	21(2.4)
한국어 교육 지원	23(1.0)	13(0.8)	5(.6)
진로지원 프로그램	—	—	22(2.5)
기타	41(1.7)	41(2.5)	37(4.2)
합계	2,410(100)	1,623(100)	842(100)

지원받았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필요한 것이었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지원받았던 프로그램의 필요성: 청소년**

구 분	2012	2013	2014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22(2.1)	14(1.7)	6(1.4)
필요하지 않은 편이었다	81(7.9)	70(8.6)	61(13.9)
나에게 필요한 편이다	658(63.8)	547(67.2)	263(59.9)
나에게 매우 필요했다	270(26.2)	183(22.5)	109(24.8)
전체	1,031(100)	814(100)	439(100)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청소년에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21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 청소년**

구 분	2012	2013	2014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1,146(76.6)	1,054(72.9)	887(64.1)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339(22.6)	374(25.9)	478(34.5)
기타	12(0.8)	17(1.2)	19(1.2)
전체	1,497(100)	1 445(100)	1,384(100)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놀이공연이나 문화공연 관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요구도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대신 학원비나 급식비 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다른 것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났다.

표 22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청소년

(중복응답)

내용	2012	2013	2014
놀이공원 방문	903(16.2)	775(15.7)	545(11.8)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685(12.3)	576(11.7)	478(10.3)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664(11.9)	490(9.9)	372(8.0)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45(11.5)	554(11.2)	393(8.5)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491(8.8)	420(8.5)	349(7.5)
학원비 지원	468(8.4)	434(8.8)	458(9.9)
대학생 멘토링	349(6.2)	314(6.4)	270(5.8)
급식비 지원	307(5.5)	282(5.7)	329(7.1)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304(5.4)	269(5.5)	242(5.2)
학습지 지원	269(4.8)	237(4.8)	208(4.5)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139(2.5)	139(2.8)	182(3.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38(2.5)	99(2.0)	109(2.4)
이중언어교실	120(2.1)	128(2.6)	148(3.2)
한국어 교육 지원	68(1.2)	53(1.1)	41(.9)
진로지원 프로그램	-	-	298(6.4)
기타	38(.7)	20(0.4)	14(.3)
없음	-	137(2.8)	197(4.3)
합계	5,588(100)	4,927(100)	4,633(100)

② 어머니

다음으로 어머니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역시 자녀가 지원을 받은 경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은 방과후수업료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문화체험이나 대학생멘토링, 문화공연관람 등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눈에 띄이는 것은 급식비 지원과 물적지원으로, 2014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전체 중 비율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되면서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도 변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변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3

다문화가족으로써 지원받은 내용: 어머니

(중복응답)

구 분	2012	2013	2014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475(18.4)	302(19.6)	115(17.9)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440(17.1)	217(14.1)	68(10.6)
대학생 멘토링	265(10.3)	180(11.7)	67(10.5)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260(10.1)	140(9.1)	60(9.4)
놀이공원 방문	249(9.7)	105(6.8)	24(3.7)
급식비 지원	186(7.2)	152(9.9)	114(17.8)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145(5.6)	80(5.2)	28(4.4)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144(5.6)	85(5.5)	45(7.0)
학습지 지원	130(5.0)	81(5.2)	18(2.8)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86(3.3)	52(3.4)	15(2.3)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72(2.8)	42(2.7)	15(2.3)
이중언어교실	48(1.9)	28(1.8)	14(2.2)
한국어 교육 지원	28(1.1)	16(1.0)	11(1.7)
진로지원 프로그램	-	-	15(2.3)
기타	50(1.9)	63(4.1)	32(5.0)
전체	2,578(100)	1,543(100)	641(100)

자녀가 지원을 받은 내용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 자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들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24

지원받은 내용의 도움 정도: 어머니

구 분	2012	2013	2014
자녀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8(.8)	4(.5)	3(.9)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은 편이었다	23(2.3)	24(3.3)	6(1.7)
자녀에게 필요한 편이다	537(54.4)	453(61.4)	170(49.4)
자녀에게 매우 필요했다	420(42.5)	257(34.8)	165(48.0)
전체	988(100)	738(100)	344(100)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에 대해 어머니에게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해가 갈수록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여 2014년의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응답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표 25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 어머니

구 분	2012	2013	2014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932(62.7)	843(59.1)	678(49.8)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533(35.9)	570(40.0)	675(49.6)
기타	21(1.4)	13(.9)	8(.6)
전체	1,486(100)	1,426(100)	1,361(100)

자녀를 위해 어떤 지원이 제공되면 좋겠는지에 대해 어머니들은 방과후 수업료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다음이 학원비 지원이었다. 어머니들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자녀의 교육을 위한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26 희망하는 자녀 지원: 어머니

(중복응답)

구 분	2012	2013	2014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890(12.2)	730(11.8)	682(11.4)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819(11.3)	641(10.3)	508(8.5)
학원비 지원	764(10.5)	756(12.2)	775(13.0)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686(9.4)	568(9.1)	479(8.0)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00(8.2)	497(8.0)	447(7.5)
대학생 멘토링	523(7.2)	451(7.3)	480(8.0)
놀이공원 방문	493(6.8)	356(5.7)	236(4.0)
학습지 지원	485(6.7)	401(6.5)	320(5.4)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440(6.0)	373(6.0)	328(5.5)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407(5.6)	333(5.4)	312(5.2)
급식비 지원	357(4.9)	370(6.0)	389(6.5)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352(4.8)	313(5.0)	233(3.9)
이중언어교실	278(3.8)	253(4.1)	229(3.8)
한국어 교육 지원	159(2.2)	135(2.2)	106(1.8)
진로지원 프로그램	-	-	420(7.0)
없음	-	18(.3)	21(.4)
기타	20(.3)	14(.2)	9(.2)
전체	7,273(100)	6,209(100)	5,974(100)

다음으로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숙제지도나 시험준비와 같은 학습관련 부분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다음이 진로지도, 다음이 예절이나 인성교육과 같은 생활관련 부분이었고, 성교육과 가족관계교육에 대한 어려움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경우도 일반 한국가정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습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고, 이에 대한 요구도 많음을 나타내었다.

표 27 **자녀 지도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어머니(2014)** (중복응답)

구 분	빈도(%)
학습 관련 부분(숙제, 시험 준비 등)	786(57.8)
진로 관련 부분(진로 선택 등)	333(24.5)
생활 관련 부분(예절 교육, 인성교육 등)	145(10.7)
성 관련 부분(2차 성장, 이성교제 등)	52(3.8)
가족 관련 부분(부모/형제/자매 관계 등)	23(1.7)
기타	22(1.6)
전체	1,361(100)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의 93%에 불과하였고 대다수는 잘 모르거나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8 **학교 다문화가족 대상 학부모 교육 실시 여부: 어머니(2014)**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전체
빈도(%)	126(9.3)	1,033(76.0)	201(14.8)	1,360(100)

그러나 일단 교육에 참여한 경우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하여 향후 다문화가족 대상 학부모교육이 좀 더 많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표 29 다문화가족 대상 학부모 교육의 도움 여부: 어머니(2014)

구 분	예	아니오	참여 안함	전체
빈도(%)	98(77.8)	9(7.1)	19(15.1)	126(100)

③ 교사

마지막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고르도록 한 결과 방과후수업료지원과 대학생멘토링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문화체험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경우 학년이 증가할수록 점차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중복응답): 교사

	2012	2013	2014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26(15.1)	139(14.8)	112(17.4)
대학생 멘토링	107(12.8)	125(13.3)	88(13.7)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106(12.7)	101(10.7)	77(12.0)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68(8.2)	84(8.9)	57(8.9)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53(6.4)	77(8.2)	67(10.4)
한국어 교육 지원	47(5.6)	62(6.6)	13(2.0)
이중언어교실	39(4.7)	56(5.9)	4(.6)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43(5.2)	52(5.5)	22(3.4)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54(6.5)	52(5.5)	49(7.6)
급식비 지원	50(6.0)	48(5.1)	47(7.3)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45(5.4)	42(4.5)	24(3.7)
놀이공원 방문	32(3.8)	37(3.9)	16(2.5)
학습지 지원	28(3.4)	34(3.6)	14(2.2)
진로지원	-	-	35(5.4)
기타	35(4.2)	33(3.5)	19(3.0)
합계	833(100)	942(100)	644(100)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의 효과성에 대해 교사들은 학부모나 학생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비교적 적었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 비해 교사가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효과성을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을 수도 있고,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31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교사**

구 분	2012	2013	201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	1(0.3)	2(.7)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16(5.2)	11(3.6)	18(6.0)
보통이다	81(26.5)	82(26.5)	114(37.9)
도움이 되는 편이다	168(54.9)	183(59.2)	147(48.8)
매우 도움이 된다	40(13.1)	32(10.4)	20(6.6)
전체	306(100)	309(100)	301(100)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청소년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사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고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32 **지원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 교사**

구 분	2012	2013	2014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156(51.0)	166(53.7)	112(37.2)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	66(21.6)	43(13.9)	65(21.6)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	54(17.6)	69(22.3)	83(27.6)
건강한 심리발달에 도움이 된다	28(9.2)	30(9.7)	37(12.3)
기타	2(.7)	1(0.3)	4(1.3)
전체	306(100)	309(100)	301(100)

반대로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문화가족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상처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청소년에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2012년도와 2013년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비율이 높았으나 해가 갈수록 점차 비율이 줄어들었고 2014년에는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교사들의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의 방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3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의 부정적인 측면: 교사

구 분	2012	2013	2014
자신이 다문화가족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및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인 사실이 드러나서 상처가 될 수 있다	118(38.6)	112(36.2)	125(41.5)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점점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	80(26.1)	55(17.8)	22(7.3)
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형식적이고 실제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49(16.0)	59(19.1)	81(26.9)
본인의 필요와 상관없는 지원 및 참여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는 경우 반감이 생길 수 있다	28(9.2)	37(12.0)	35(11.6)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어 지원받는 것에 대해 자존심을 상할 수 있다	25(8.2)	38(12.3)	31(10.3)
기타	6(2.0)	8(2.6)	7(2.3)
전체	306(100)	309(100)	301(100)

그렇다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사들의 경우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다수가 응답하였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대략 20% 내외였다.

표 34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방향: 교사

구 분	2012	2013	2014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26(73.9)	218(70.6)	230(76.4)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3(17.3)	64(20.7)	67(22.3)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5(4.9)	18(5.8)	-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2(.7)	1(0.3)	-
기타	10(3.3)	8(2.6)	4(1.3)
전체	306(100)	309(100)	301(100)

그렇다면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와 달리 상담이나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문화체험이나 방과후 수업료 지원, 학습지원 등도 모두 중요할 수 있지만 심리적응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임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5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교사**

구 분	2012	2013	2014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180(17.5)	190(16.6)	199(13.9)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18(11.4)	134(11.7)	145(10.1)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119(11.5)	124(10.8)	150(10.5)
한국어 교육 지원	104(10.1)	106(9.3)	110(7.7)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14(11.1)	103(9.0)	112(7.8)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91(8.8)	100(8.7)	104(7.2)
이중언어교실	74(7.2)	83(7.3)	119(8.3)
대학생 멘토링	62(6.0)	72(6.3)	93(6.5)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57(5.5)	70(6.1)	93(6.5)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26(2.5)	42(3.7)	47(3.3)
학습비 지원	-	35(3.1)	-
급식비 지원	18(1.7)	31(2.7)	60(4.2)
학원비 지원	15(1.5)	23(2.0)	34(2.4)
놀이공원 방문	22(2.1)	22(1.9)	16(1.1)
진로지원 프로그램	-	-	113(7.9)
학습지 지원	19(1.8)	-	34(2.4)
기타	12(1.3)	8(0.7)	3(.2)
없음	-	1(0.1)	3(.2)
합계	1,031(100)	1,144(100)	1,435(100)

2) 면접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다문화청소년 패널 중 청소년 35명, 그들의 어머니 3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청소년
■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한 불쾌함 ■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당한다는 느낌 ■ 역차별 논란에 대한 불편한 마음 ■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비참함 ■ 다문화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동일한 프로그램의 반복적 제공) ■ 사회적 관심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의 부담스러움 ■ 다문화가정을 일반가정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 ■ 사춘기 자녀의 지원에 대한 수치심과 불쾌감으로 인한 지원 거부, 그러나 부모의 요구도는 여전히 존재 ■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상처와 통합지원의 필요성(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묵였던 경험에 대한 불쾌감) ■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의 절실함(단순지원보다는 내실 있는 학습지원의 필요) ■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학습관련 지원에 대한 강한 요구 ■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적 관여의 어려움과 자녀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서운함, 부모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 ■ 자녀의 사춘기 변화와 대처의 어려움, 부모교육의 필요성 ■ 차별적 시선보다 더 급한 절대적 결핍과 지원의 필요성	■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긍정적 마음 ■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움 ■ 다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담스러움과 외부로부터의 구별짓기에 대한 괴로움 ■ 동일한 프로그램의 반복적 지원과 흥미감 상실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불쾌함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부정적 태도(예: 한국어수업, 어색한 멘토링,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라는 내용) ■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차별감과 수치심: 통합지원의 필요성 ■ 중학생 대상 지원프로그램의 감소 ■ 지원에 대한 필요성의 약화 ■ 다문화 대상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않음. ■ 역차별 논란으로 인한 입장의 곤란함. ■ 방과후 수업 지원의 필요성: 형편이 어려운 경우 ■ 경제적 지원의 요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 어머니나라에 대한 무관심(가보고 싶은 생각 크지 않고, 어머니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할 생각 별로 없음) ■ 어머니 모국어에 대한 크지 않은 관심(어머니 모국어보다는 영어나 일어 등 활용성이 큰 언어에 대한 관심)

5. 맺음말

국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성공하였고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으나 장기간의 복지적 차원의 지원 결과 오히려 다문화가족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사회적 부담의 존재로 인식이 되는 현상을 도출하였다. 다문화정책의

초기에는 다문화집단을 일률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복지적 시혜의 대상으로 여긴 측면이 강하나, 이제 제 2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이 시작되었고, 1차 시기와는 뭔가 다르고 사회적 상황과 변화에 대응하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며, 어떤 영역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경험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며 모든 다문화집단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여 일률적인 선별 지원은 지양하고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정책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신 현 옥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1.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성과와 비판적 검토

1)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성과

무엇보다 그동안 공교육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편입학이 가능해지면서 제한되었던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합법적인 거주자인 반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는 부모 혹은 부모 중 한명이 한국에 먼저 들어오고 나서 자녀를 입국시키거나 한국에서 체류 중 출산한 경우로서 대다수는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교육권, 의료권의 기본적인 권리 획득이 어려운 처지였으며, 또한 결혼이민자의 전혼자녀인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편입학의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2006년 6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간소화하였고, 2008년 2월 개정을 통해서 초·중학교 전입학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까운 사람의 보증서만 있어도 할 수 있게 하였다. 2010년에는 학칙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중학교 전입학 절차를 없애고 초등학교에 전입학 절차를 중학교까지 적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에 진학에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 청소년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 법적인 개정과 함께 중도입국청소년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위해 교육청, 출입국관리소에 다문화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하고, 정규학교 배치 전에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 운영, 학교내 한국어 교육과정(KSL)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을 수립한 점은 이주청소년의 교육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 자녀생활지도, 부모교육 등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다양한 자녀양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의 200여개가 넘는 다문화가족 서비스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다문화자녀대상, 부모대상, 가족단위 등 다양한 대상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착초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을 지원해왔다(표1참조).

표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자녀 지원사업 성과(2013)**

	언어발달서비스	언어영재교실	방문자녀생활 서비스	방문부모교육 서비스	방문한국어교육 서비스
대상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및 비다문화가정 아동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	만 12세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만19세 미만)
내용	언어발달 평가 언어교육 (어휘·구문발달, 대화·의사소통 능력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결혼이민자 부모의 출신국 언어수업	인지영역: 독서코치,숙제지도 자아정서사회영역 문화역량강화영역 시민교육영역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 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한국어교육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방법	개별수업(1:1) 모둠수업 (2인이상) 주 2회, 회당 40분 원칙	1개반 당 5~10명내외 (10개월) ※ 수강생 중 다문화 가족비율이 60% 이 상이 되도록 운영	주2회, 회당2시간 1회(10개월까지) 원칙	주2회, 회당2시간 1회(5개월) 원칙 생애주기별 3회지원	주2회, 회당2시간 1회(10개월까지) 원칙
실적	평가 8,864명, 교육 5,452명	5,754명	4,346명	6,220명	480명

특히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는 연로한 부모 혹은 어린 자녀가 있거나 교통사정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에게도 자녀돌봄과 교육 서비스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방문교육서비스는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되는데 첫째,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서비스, 둘째는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셋째는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를 지원하였다. 특히 자녀생활서비스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 내용은 학령 전에는 놀이를 통한 단어 익히기, 큰소리로 책읽기를 해주며, 초등학생의 경우 국어·수학공부, 알림장 해석 및 숙제 봐주기 등을 해주었다. 방문 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의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다문화가정의 주양육자인 결혼이민자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지원해주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금순외, 2014)

셋째,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달리 부모(부 또는 모)의 이주로 인해 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시기에 한국으로 입국해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 한국어교육 등 초기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빠른 대응방안을 강구한 점이다. 그 외에도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제18조)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근거(제30조)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브릿지 프로그램인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하고 있다. 레인보우 스쿨은 중도입국청소년(9-24세)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생활정보, 문화체험, 사회적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입국초기 청소년들에게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신감과 사회적 회복 등 원활한 초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3년에는 서울, 경기(수원, 안산, 평택, 부천),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북(익산), 부산 등 10개소에 운영되었으며,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전일제, 여름학교, 주간·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디딤돌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 및 한국생활에 대한 자신감 향상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특히 학교밖 후기 청소년,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19세~24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 적응 교육과 진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4개월의 과정을 수료한 이후의 사후 관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표 2 레인보우 스쿨 운영 현황(2013)

기관	지역	운영 분야	비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서울	전일제, 여름학교	직영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전일제, 여름학교	위탁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서울	주말·야간학교	위탁
다문화사랑회	인천	전일제, 여름학교	위탁
부천새날학교	경기도 부천	전일제, 여름학교	위탁
수원이주민센터	경기도 수원	겨울학교(시범운영), 전일제, 여름학교	위탁
안산WeStart글로벌아동센터	경기도 안산	전일제, 여름학교	위탁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경기도 평택	전일제, 여름학교	위탁
제천YWCA (한국폴리텍다솜학교)	충북 제천	겨울학교(시범운영)	위탁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	전북 익산	전일제	위탁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부산	전일제, 여름학교	위탁

2) 다문화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앞에서 논의한 측면에서 성과를 냈지만 또 한편에서는 성급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면서 학교현장에서 다문화청소년을 구별, 분리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비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기존 다문화청소년 정책이 시행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청소년 대상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면서 다문화학생의 내부적 다양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면 모두를 포괄하는 방식의 지원을 하다보니 ‘다문화학생’, ‘다문화청소년’을 다른 학생들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의도하지 않는 낙인 효과를 가져왔다. 다문화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특별학급’의 설치,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 다문화청소년 대상 캠프 등 다문화학생 학생 지원방식은 정책의도와는 다르게 다문화청소년을 비다문화청소년과 구별, 구분하거나 다문화청소년은 무엇인가를 지원받아야 할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을 낳게 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사회전반의 다문화인식개선, 친다문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적고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교육전문가 양성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학교내에서 다수자를 위한 다문화인식교육은 아직은 일회적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학교 내 교과서에 다문화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2014년부터 그러한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는 일부 과목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역량증진보다는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거나 복지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문화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잘 하지 못하는 한국어, 학습지원 등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 외에도 다문화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일 수 있는, 청소년들이 리더십과 주도성을 기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 가운데에는 매우 적응적이고 우수한 인재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점이 부각될 수 있는, 그들의 우수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 이중언어 등 언어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프로그램은 부족한 편이다. 사실상 언어발달이라는 것은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한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매우 유리한 역량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어교육을 지나치게 ‘공부’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조기에 언어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이르러서는 보다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교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학교 내 독서클럽이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또는 각 지역의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독서모임,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 등을 개설하여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어 능력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언어의 경우, 2012년도 보고서에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명목상 이중언어이고,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파견되느냐에 따라 배우는 언어가 달라지는 일이 많아, 어머니는 일본출신

인데 학교에 파견된 강사가 몽골사람이어서 몽골어를 배운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몽골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고 싶은 사람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원래 이중언어교육의 목적이 어머니나라 말을 배움으로써 어머니와 소통을 하고,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이해를 함으로써 이중문화수용성을 넓히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에서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하면, 제 2외국어를 배우도록 강요하는 것은 기본적인 학업도 어려운 청소년에게 추가로 부담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이므로 당연히 외국어를 잘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에게만 이중언어를 가르치기 보다는 일반 비(非)다문화청소년들도 모두 함께 특정한 제 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라는 이유로 이중언어를 배우라고 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로 보면, 주로 초등학생 대상의 정책들이고, 중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상당비율 취학전 연령대 아동이지만 점차 학교에 입학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들은 대다수가 초등학생 대상이다. 학부모들의 경우 중학생이 되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이중문화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히 중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점차 중고등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수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증진과 같은 심리적응을 촉진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 학부모나 정책입안자들은 청소년의 학업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아정체감이나 자아존중감 강화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도의 연구결과에서도 그렇고, 2013년도에서도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심리적응프로그램이었다. 실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이나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 문제들이 시기에 제대로 해결하지 않게 되면 발달상 방황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드문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프로젝트인 ‘다톡다톡’ 사업은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현대자동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원을 지정 기탁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가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청소년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다톡다톡 사업)은

2013년은 6월에 시작하여 2014년 5월까지 1차년도 사업이 수행되었고, 현재 2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의 목적은 이주배경청소년의 다각적인 심리, 정서적 지원 및 전문적 개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청소년기에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을 돕는 것에 있다.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이주청소년전담기관, 다문화지원 전문기관 등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업협력 파트너를 선정하였다는 점이 독특하다. 사업은 상담실 사례관리와 심리치료 지원으로 진행되는데, 상담실 사례관리는 초기상담, 상담진행, 종결, 사후관리로 진행되며 내담자와 상담 진행 중 필요시 심리진단 및 심리치료로 연결한다. 심리치료비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 중 보다 전문적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례관정 회의를 통해서 치료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병원 등 치료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

표 3 다문화청소년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개요(다툼다툼 사업)

	1차년도	2차년도
서비스 대상자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치료지원 14-19세)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치료지원 10-19세)
서비스내용	진로진학상담, 심리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진로진학상담, 심리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개소	4개소	5개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부산
위탁기관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인천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인천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주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은 전국에서 몇 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부처간 연계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는 중앙 차원에서 여가부가 설치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서울, 1개소), 전국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있는 안산시가 운영하는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로, 국공립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에 2개소뿐이다. 그 외에 기업이 재원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방식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삼성이 지원하는 ‘위스타트 글로벌 다문화아동센터’ 2개소(수원시, 강진군), 현대자

동차가 재정지원하고 서울시와 협력운영하는 ‘서울온드림센터’ 1개소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화된 기관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기관인 학교, 기존의 다문화가족 서비스 전달체계인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서비스 전달체계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의 문화의 집 등 청소년활동 기관, 지역에서 아동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들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서는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사회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로 각각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별도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내 다문화청소년 대상자를 모집해서 다문화청소년 사업을 해야 하다 보니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혜자의 중복성 문제가 노정되고 있고, 한국문화체험 등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에서 진행되다보니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피로감도 느끼게 된다. 또한 교육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중도에 탈락하는 청소년을 학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부처간 연계 협력사업들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긍정적인 발달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탈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 경우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을 필요가 있다.

결국 유사한 사업과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수준에서의 부처간 업무협의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네트워킹을 통한 업무 협력, 사업조정, 사업간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내 네트워크,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부처별 사업 중복성의 문제제기도 해결될 수 있다.

표 4

다문화청소년 지원 전문기관 현황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안산이주 아동청소년센터	서울온드림센터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
재원	여성가족부	안산시	현대자동차 (서울시)	삼성 위스타트운동본부 (수원시, 강진군)
서비스 대상	만9~24세 다문화청소년, 탈북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	만 18세 이하 이주아동청소년	만 9~24세 중도입국청소년	만12세 이하 다문화아동청소년
주요 서비스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적응교육, 상담, 멘토링, 지역네트워크	상담 및 사례관리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적응교육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적응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학습지원
기관성격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프로그램지원을 통해 지역기관과 협력운영 (예:rainbow school)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문화청소년 전문서비스 기관	민관 협력 방식 (기업: 운영비 서울시:공간 지원)	민관 협력방식
지역	서울	안산	서울	수원시, 강진군

넷째로, 정책과정에 수요자의 요구분석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친 것이겠지만,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정책이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이 실제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평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기존의 고정관념에 근거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오히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당사자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거나 지원에 대해 거부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계획이 큰 수준에서는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매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부분이 없다. 사실상 많은 사업들이 효과성 검증 없이 예산들이 증가 또는 감소되고 있다. 2014년 예산이 대폭 증가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경우는 마무리가 잘 안되고 흐지부지 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언급되어 왔다. 대학생들이 처음에 봉사점수로 또는 선의에서 시작을 하나 끝까지

멘토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간에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가 바쁘다고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가 하는 일이 벌어져 다문화청소년들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중간에 멘토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멘토링 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성 검증이 매우 필요하다.

2. 다문화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1)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은 다문화사회의 가치인 다양성에 대한 존중,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간 분리가 아닌 통합, 학교와 지역사회간 통합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분리, 낙인되지 않도록, 소외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강구하는 것이고, 둘째, 다문화청소년들을 둘러싼 지지집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다수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강령 등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친다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표 5 **다문화청소년 정책방향과 과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		
다양성의 존중, 통합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전략	핵심과제
1	다문화청소년의 소외 방지	과제 1: 대상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과제 2: 다문화청소년의 요구특성에 근거한 지원 과제 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2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과제 4: 부모 교육 및 역량강화 과제 5: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다문화역량 강화 과제 6: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3	친 다문화적 환경조성	과제 7: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과 확대 과제 8: 다문화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과제 9: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2) 다문화청소년 정책 과제

우선적으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은 분리가 아닌 통합을 기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방식과 같이 다문화청소년들을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다문화청소년을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다른 존재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지원의 내용을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동일한 지원 내에서 하되, 선별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지원하는 이중적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는 다문화청소년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저소득층에 속한 다문화청소년은 같은 저소득층의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들이 다문화청소년들의 다양성에 좀 더 집중한 해야 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속하는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좀 더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해 일률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좀 더 강화하여 그 안에 포함된 다문화청소년들이 ‘다문화집단’으로 특별히 구분되지 않아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대상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현재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대부분의 지원프로그램은 소득수준이나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수준과 상관없이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다문화청소년’들만 모이는 또는 ‘비(非)다문화청소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사실상 ‘비(非)다문화청소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도 일반적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을 가지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다문화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선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가능한 일반적인 청소년프로그램 내에서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이 구별 없이 자연스럽게 ‘청소년’이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예로는 현재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아니라 한국어가 취약한 사람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한국어 교실 또는 독서교실 등으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캠프가 아니라 캠프의 주제에 따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프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이 아니라 멘토링이 필요한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멘토링으로, 이중언어대회나 엄마나라 말 대회보다는 외국어말하기 대회로 하여 참여대상은 모든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내에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한다고 해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청소년 지원예산을 일반적인 지원예산에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다문화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추가로 지원을 더 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다문화청소년이 존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좋아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식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하다보니 지금까지의 정책은 모두 다문화청소년들이 개인적 역량이나 사회경제적 계층과 상관없이 무조건 부족하고 불쌍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인식에 기반 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들이 지원을 받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낙인이 형성되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형성하지 않으면서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원방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다문화’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키고 기존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정책보다는 일반적인 청소년 정책 내에 다문화청소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2) 다문화청소년의 요구특성에 근거한 지원

다문화청소년들은 모두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다. 특히 본 연구의 3년간 결과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발달양상을 구분해 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적응을 잘 하는 집단이 있고, 점차 적응수준이 상승하는 집단, 반대로 점차 하강하는 집단,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낮은 집단 등 네 집단이 있고, 각 집단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발달특성별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발달 및 적응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의 경우는 환경 및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고등교육과정에서 중도탈락 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주로 부족한 측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발달 및 적응수준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점차 향상되는 집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역량강화 및 리더십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역량강화의 방법은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통합적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다문화청소년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별도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청소년 중에서 적응수준이 높고 발달상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집단의 경우 일반청소년들과 통합하여 일반적인 리더십 프로그램, 이중언어 프로그램,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반면 발달 및 적응수준이 낮은 경우는 학습멘토링, 독서지도, 각종 심리치료 및 상담,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는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지원 초기에는 학습지원과 독서지도 등 학교생활 적응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점차 특기적성이나 체험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시킬 수 있다.

(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지금까지 3년간의 조사에 근거하면 청소년과 학부모와 달리 교사들의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정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매우 높았다. 결혼이민자 어머니는 역시 스스로 자녀에게 적절한 역할 모델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주고 있다’는 인식에서 내적 갈등 경험을 경험하였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결혼이민자-부모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은 주로 한국어와 이중언어에 관한 내용이 많고 그 외에는 일회성 캠프나 멘토링, 학습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다. 점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춘기에 이르게 되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따돌림 등을 경험할 때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히 초등 고학년, 중학교 학령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위하여 자아정체감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자아성찰 프로그램, 자기주장 훈련 등 기존의 프로그램에 다문화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보다는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학교 이상의 사춘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정체감 프로그램의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의 독특한 정체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부모 교육 및 역량강화

본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산출되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는 경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실질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역량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해주는 결과로, 부모가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질적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어떤 지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청소년이 점차 고학년으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더욱 더 불안감만 커지고 역량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녀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 하여 자녀교육의 내용, 학교의 교육방침, 한국 학교의 진로, 학습지도, 다양한 학습지원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그 외 자녀교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아버지 교육을 강화하여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를 교육에 관여시키고 그 결과 자녀의 교육과 역량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부모교육을 기획 및 구성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으로 자녀지도와 관련하여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 자녀의 교육 및 진로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에 근거하여 교사와 다문화전문가가 협의를 통해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각 학교별이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 또는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의도치 않게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 없이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배우는 것도 있으나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도록 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상담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다문화아동청소년 중단 연구 결과에서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교사들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다문화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학교교사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관련 교육 자료 부족 및 교사 간, 지역 간 상호 정보공유 부재로 다문화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많은 교사, 청소년기관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 환경에서 담임선생님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할 때 어려움이나 역사교과를 가르칠 때 일본이나 몽골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다문화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슷하다. 그러나 어떤 교사들은 다문화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좋은 지도전략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처음 다문화가정 자녀를 담당하게 되는 선생님이나 새로운 문제와 부딪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교사연수시간을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다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지도 방안, 교실 내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을 통합하여 교육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다루어서 실제 다문화적 학교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학교 전체의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외에 다문화담당교사를 정하여 전문연수를 실시하여 각 학교 내에서 다문화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다문화전문교사를 배출하여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교육과 다문화 청소년 상담 및 지도 등 학교 내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과 학교 외에도 다문화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다문화수용성도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을 접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관련기관 실무자들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및 다문화청소년 지도방법 등에 대한 부분 역시 중요한데, 현재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 내에 다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론적인 수준이고,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다문화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을 구별하지 않고 활동을 지도하는 방법, 지도하는 가운데에 조심해야 하는 것 등 다문화적 민감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상담사들에게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과정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실제 상담사례에 대한 소개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6)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프로그램

청소년의 주변에 있는 지지집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로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을 교사로 양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 다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정책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범대 내에서 운영을 하고 배출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초등학교에 대다수 재학 중이나 점차 중학교와 고등학생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이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우수한 고등학생 중 사범대에 진학할 의지가 있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범대 및 교육대 입학에 장려하여 이주배경의 청소년이 교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사범대나 교육대를 졸업하면, 본인이 원할 경우 다문화청소년이 많이 분포한 학교에 우선 배정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다문화가정 출신의 교사가 직접 다루어줄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가정이나 일반교사들이 줄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교육컨텐츠 개발과 교육 확대

다문화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나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미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과 교수 학습전략, 생활지도나 상담지도 자료들이 공유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 차원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다문화관련 모든 교육자료 및 정보들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자료나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해외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경우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의 다문화교육에서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워크샵 등이 확대되어야 하며, 일정 수 이상 다문화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등과 함께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교육 및 활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워크샵도 병행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8) 다문화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교사나 청소년지도사, 멘토 등이 다문화청소년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가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이해교육이나 적어도 매뉴얼 정도는 제공하여 참가하는 비(非)다문화 청소년들이나 다문화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기획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을 지도, 또는 상담할 때 유의점, 가이드라인 및 반차별 지침, 다문화윤리강령 등을 정하여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사, 교사,

등 각 전문영역에서 인종, 문화 등을 고려한 전문가의 가치와 태도를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는 지침과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문화적으로 적절한 모델과 전략에 기반을 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집단을 위한 효과적 서비스 모델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기관은 다문화주의를 권장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접근성과 기회의 평등을 지지하는 기관의 철학과 정책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철학과 정책은 서비스 기관의 공간내부 장식은 물론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자료나 게시판 등에 사용되는 언어, 채용하는 직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윤리강령 제정시 다양한 유형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안을 만들기 위해 내부자 중심의 제정 절차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문 종사자 직업윤리로서의 강령, 서비스 대상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서비스 헌장, 또는 기관의 윤리경영 등 다양한 유형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행동 지침을 만들기 위해 제도화된 절차에 의거 진행하도록 한다(양승주·신현옥, 2014).

표 6 **미국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중 다문화 관련 윤리기준 예시**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 1.03 동의
 - (b) 클라이언트가 문맹이거나 실천 장애 사용된 주요 용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세한 언어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 또는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자격있는 통역사 또는 번역가를 준비하는 것이 포함된다.
 - 1.05 문화적 능력과 사회적 다양성
 - (a)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문화 및 문화의 기능을 이해하여,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강점을 인식해야 한다
 - (b)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관한 지식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민감하고 사람간, 그리고 문화 집단간의 차이에 민감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자신이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c)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성별, 성적 성향, 연령, 혼인상태, 정치적 믿음, 종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에 따른 차별의 특징에 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 (b)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나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게 동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비판에는 동료의 능력 또는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성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관계된 동료를 격하시키는 언사가 포함된다
4.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 4.02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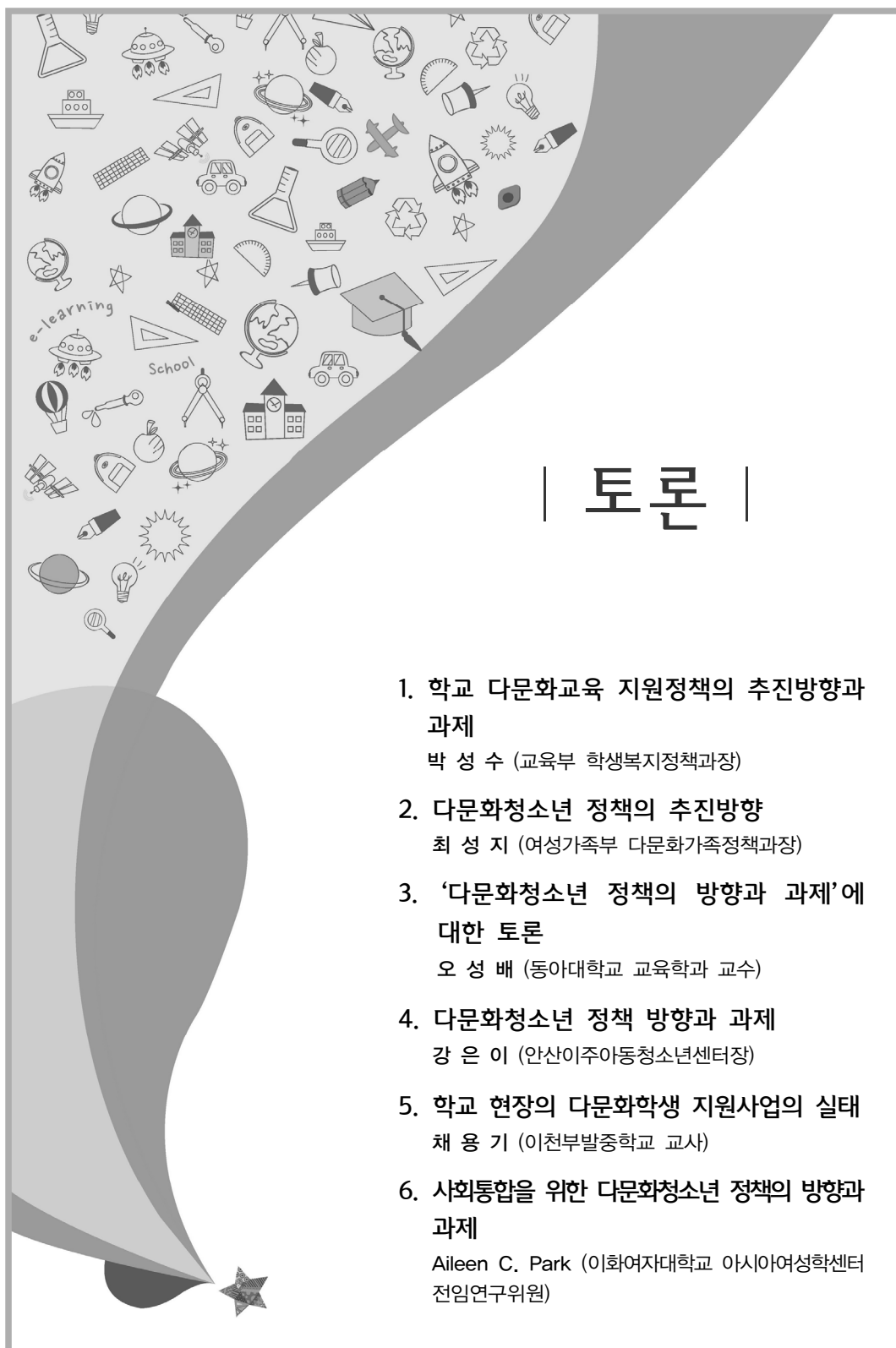
사회복지사는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성별, 성적 성향, 연령, 혼인상태, 정치적 믿음, 종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어떠한 유형의 차별도 행하거나 이를 묵과, 조장,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9)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언어발달이나 학업 지원,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체성·사회성 발달을 위한 본격적 프로그램 개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 서비스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주로 학령기 이전의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소년기 자녀와 학부모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의 부족, 다문화적 감수성이나 언어적 문제 등이 있어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상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 등은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에 종합적 접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소년지원기관이 각기 핵심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 그 가족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학부모의 욕구에 따라 자녀 상담 및 교육,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 학부모 역량 강화, 가족캠프 등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다문화가족의 자녀지원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은 청소년들의 다문화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이 함께 음악, 미술, 체육,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문화시민으로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안학교 등과 연계를 통해서 다문화청소년의 상담 사례를 축적하고, 사춘기에 이르게 되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초등 고학년, 중학교 학년기의 자아정체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들의 다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실무 매뉴얼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청소년 관련 유사·연관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관련 유사, 연관사업은 학업중단 또는 학교밖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사업, 학교안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의 We프로젝트가 있다. 이 두가지 사업은 부처별로 추진되는 위기청소년이나 학업중단,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이지만, 다문화가족이나 이주 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성장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서비스 누락 문제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이들이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사례관리를 하기에 역량이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당장 기존의 체계 내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대상 상담,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문화청소년이 많이 분포하고 지역별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토론 |

1. 학교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박 성 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

2.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추진방향

최 성 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장)

3.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오 성 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4. 다문화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강 은 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장)

5. 학교 현장의 다문화학생 지원사업의 실태

채 용 기 (이천부발중학교 교사)

6.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Aileen C. Park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위원)

학교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박 성 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

□ 인사 말씀

- 우선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 한국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층 **성숙된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자스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다문화교육 및 정책 전문가** 여러분께 교육부를 대표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현황 및 문제인식

- 주지하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다문화 학생은 68,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올 해 처음으로 **전체 학생의 1%**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전체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는 현상을 감안할 때 향후 다문화 학생 비율의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특히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60% 정도가 **미취학아동**(만0~6세)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구분하고 있지만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저소득층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이 실제로 상당 부분 중첩되어 이 사회의 **잠재적인 소외계층으로 대물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부는 발제를 맡아주신 양계민, 신현옥 연구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학교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며, 최근 취임하신 황우여 장관님께서도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점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부의 학교 다문화교육 지원정책

- '06년 이후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및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어 교육과정(KSL), 이중언어교육, 다문화학생 멘토링, 다문화 예비학교 및 중점학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교육부뿐 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여러 부처 역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다문화교육 정책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부처마다 다소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교육부는 **‘학교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 첫째, 미취학아동 단계부터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 및 적응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문화 기초과정’** (Foundation stage)을 신설하고, 기존의 **예비학교와 중점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둘째, 역량과 경험이 검증된 다문화 정책학교(예비학교, 중점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를 **‘지역 다문화교육 센터’**로 육성하여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다문화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인근 지역의 학교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셋째, 이와 같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사회부총리 출범 이후 가칭 **「범부처 학교 다문화교육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각 부처 및 지역의 인적·물적 정책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요약하면 다문화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와 기관에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내실 있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부는 인적·물적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원**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 이러한 방안은 기존의 **소극적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의 개념을 다문화교육 정책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맺음말

-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가정 및 학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와 사회통합** 노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대승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계신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와 같이 과학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어 **‘증거에 기반한 교육정책’(Evidence-Based Education Policy)**을 선도하길 기대합니다.
- 교육부도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여 **현장성 높은 다문화교육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추진방향

최 성 지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장)

1. 다문화청소년 정책 현황

- 그동안,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14년 1월 기준 79.5만명)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21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확대되면서, 가족교육 및 상담,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고, 많은 다문화가족이 도움을 받고 있음.
- 2012년에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에 따르면, 2009년 실태조사에 비해 다문화가족의 결혼초기 해체율이 감소되었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은 향상되었으며, 고용률은 증가하고 빈곤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 결혼초기(5년 이내) 해체비율 : ('09년) 53.1% → ('12년) 37.8%
- * 본인이 한국어(말하기)를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 : ('09) 37.3% → ('12) 57.5%
- * 고용률 : 여성결혼이민자 ('09) 36.9% → ('12) 53.0%
남성결혼이민자 ('09) 74.3% → ('12) 80.3%
- *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비율 : ('09년) 59.7% → ('12년) 41.9%

- 다문화가족자녀와 관련해서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언어 발달서비스, 방문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조기적응을 위해 레인보우스쿨(22개소)을 별도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다문화가족 자녀, 그밖에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이탈, 중도입국, 외국인 부모를 둔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음.

2. 다문화청소년관련 실태조사 결과

- 5년 이상 장기거주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최근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중도입국 자녀 등 외국성장 다문화가족 자녀는 탈학교 가능성이 높아 지원 필요성 증대

* **결혼이민자의 5년 이상 거주비율** : (09년) 41% → ('12년) 72.5%

* 2013년 다문화가정의 초·중·고 학생수는 각각 39,430명, 11,294명, 5,056명으로 2012년 대비 각각 16%, 17%, 43% 증가

- 2012년 실태조사를 보면, 자녀세대(9~24세)는 진로교육 욕구가 4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자리 소개(45.6%), 직업기술훈련(44.8%), 학습지원(43.2%), 이주부모나 언어교육(29.2%) 순으로 나타남. 다만, 성별, 연령별, 성장배경별 수요가 조금씩 달라 정책 추진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소년 자녀의 학업중단사유를 보면,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 때문에'가 23.8%, '가정형편이 어려워서'가 18.6%, '학교공부가 어려워서'가 9.7%, '한국어를 잘 몰라서'가 5.0% 등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으로 차별경험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13.8%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음.

표 다문화가족 자녀의 개인특성별 교육 및 지원서비스 요구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이주부모 나라 언어교육	이주부모 나라 문화이해	학습 지원	진로 교육	상담	직업 기술 훈련	일자리 소개
전체		18.6	20.2	29.2	26.4	43.2	49.1	28.1	44.8	45.6
성별	여자	18.0	20.0	31.1	27.1	45.1	50.2	28.4	40.5	44.2
	남자	19.2	20.5	27.4	25.8	41.4	47.9	27.8	49.1	46.9
연령	9-11세	15.4	18.8	37.3	35.6	54.0	-	-	-	-
	12-14세	13.6	14.4	32.2	27.0	50.0	46.4	29.3	27.9	22.7
	15-17세	17.3	16.7	28.8	26.1	45.6	54.8	33.1	39.4	33.2
	18-24세	25.0	26.7	21.0	18.7	29.0	47.6	25.3	54.5	61.1

3. 향후 정책 발전방향

- 양계민 박사께서는 중단조사, 국가 및 지자체 관련사업 분석 등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가진 특성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고, 초등학생 대상사업이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사업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하였음. 또한, 지자체, 다문화센터, 교육청 등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과 다문화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도출하기도 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신현옥 박사께서도 그간 다문화청소년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 자녀생활지원 등 다양한 자녀양육관련 서비스가 제공된 성과가 있지만, 현장에서 다문화청소년을 구별·분리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고 진단하였음. 다만,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 정서적 프로그램은 부족하며, 다문화청소년들의 긍정적 측면을 보일 수 있는 리더십과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음. 이 밖에도 다문화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상 발제자들께서 지적하신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첫째,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 이를 통해 유사·중복사업 추진을 자제하고,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청소년은 적극 발굴하고, 기관간 협업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언어영재교실(여가부)이나 이중언어교육(교육부) 사업의 중복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에서는 유사 사업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이나 학교 부적응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최근 정부가 대안학교 등을 설립하여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움. 중도입국 자녀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이 가지는 이중언어 장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
-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부터 찾아가는 자녀대상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최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교안 및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교육부와 협조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이 보다 내실화 되도록 노력할 것임.
- 끝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정착한 우수 다문화가족 사례를 발굴하여 지속 홍보할 예정임. 올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다인재, 다재다능 대한민국”을 주제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오 성 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도 ‘다문화’라는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 사회 적응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예컨대, 박희훈·오성배, 2014; 박계란·이지민, 2010; 천호성, 2011 등).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정책과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6년 경부터 정부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점진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중단연구의 필요성과 중단연구에 성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실태에 근거하여 현행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부 정책을 기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여러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토론자는 전반적으로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 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동의하면서 몇 가지 각론적인 부분에 대한 제언을 추가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의 정책과 사업 운영의 추진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정책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업무를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과는 학업중단, 가출, 북한이탈, 다문화 등의 다양한 소외 계층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와 별도로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업무는 다문화가족정책과와 다문화가족지원과에서 나뉘서 맡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도 그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감안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과 또는 다문화가족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부분만 따로 떼어 운영하는 것의 논리성과 효율성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사업의 시도 지역 수준의 추진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개청소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단위까지 구축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개별 지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특히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허브기관으로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센터는 교육청-학교 체계의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과 콘텐츠, 프로그램, 연수, 컨설팅 등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구성된 내용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하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마다 다문화교육 지원시스템이 다른 상황입니다.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유명무실하게 존재하거나 전혀 설치되지 않은 시도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스템은 주로 읍면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기회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간의 원활한 연계체제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통계 현황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합니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통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통계자료에서 중복 집계, 집계 누락 등의 오류가 발생하여 실제 수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취학률과 학업중단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특히,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통계자료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만 그 수를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중도입국자녀의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전제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입국자녀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학습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가급적 통합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인성교육적인 측면과 학습효과성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일반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만 따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서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한 연구에서도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예비학교 또는 대안학교, 청소년 기관 등이 아닌 일반 학교나 청소년 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시간과 과정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멘토와 멘티로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중학교 이상의 학교급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 방안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취학률이 낮은 상황이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 정책과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정책 요구 분석’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사들은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 머물고 있는 중등학교 단계 학령기 청소년들 가운데 학교에 진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을 다루는 구체적인 진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원활한 적응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사와 청소년지도자의 적극적인 지지가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와 청소년지도자의 다문화 사회 이해를 위한 방안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독서교육 전문교사 또는 상담전문교사 등의 사례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 지도의 경험이 풍부한 교원(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전문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인사 교류를 통해 타 학교로 전근을 갈 경우,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도 경험을 통해 길러진 경험과 노하우 등이 고스란히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년간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교육한 경험이 있는 우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화 연수과정을 진행하여 전문교원으로 양성 배치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 다문화 교육 역량을 축적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다문화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을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제가 마련될 경우 다문화교육 전문교원의 다문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역량을 온전히 전달할 뿐만 아니라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다문화 사회 이해 역량도 높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늘 발표된 연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구들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가정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 지원, 교육열 등 가정배경의 변화에 따른 자녀의 성장 결과에 초점을 둔다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올바른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모교육 정책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한국사회의 교육 체계와 흐름을 상대적으로 높게 이해하고 있을 아버지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의식 고취와 적극적 참여, 노력이 자녀의 성장에 바람직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버지 교육의 중요성을 대두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아버지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현재 시범사업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사업을 통해 부모의 긍정적 실천이 자녀의 인성과 역량을 훌륭하게 변화시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취학률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밖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취학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학교 밖에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어와 문화, 진로, 심리치유 등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진입한 이후에도 여느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통합교육 차원의 학업 역량강화 사업과 달리, 별도의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이들을 위한 폴리텍다솜학교와 인천한누리학교, 예비학교 등이 마련되어 있고, 지원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접근성을 감안한 예비학교의 확대와 중등 단계 예비학교의 신설 등 지속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면,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모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방적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며,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평화,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바림직한 성장에 동반자가 될 비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중심이 될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평화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공유하며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현명하게 상생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초석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청소년 정책 방향과 과제

강 은 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장)

- 우선 다문화청소년과 가족의 중단조사를 통해 국내 다문화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을 따라가며 ‘다문화’라는 포장지 안에서 아이들이 가진 수많은 다양성과 잠재력들이 그저 ‘부적응’, ‘어려움’ 등의 부정적 단어에 묶여있었던 인식을 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 결코 쉽지 않은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이주아동과 청소년들을 만나는 본 기관의 경험과 비추어볼 때 매우 높은 공감대를 느낀다.
- 본 연구성과에서 제시한 다문화중단연구의 연도별 핵심주제 및 결과 도표(p10)에서 제시한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수준’등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에 따른 발달수준 및 부적응 수준은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 사실상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들의 사례관리 결과 개입수준에 있어서 고위험 또는 위기개입을 필요로 하는 가정은 저소득가정으로 ‘다문화’라는 요인 보다는 ‘빈곤’, ‘빈곤에 의한 파생적 문화’가 가져오는 요인들이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 ‘이주배경’이라는 요인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사실상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다문화 청소년들은 빈곤가정 청소년들이다.
- 본 연구성과에서 제시한 함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p10-11)
 -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진 발달특성은 개인차가 있다
 -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그런데 그 지원은 일괄적 지원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지원 할 필요가 있다
 -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떨어지는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응 등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 함의를 정리했을 때 **‘저소득층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되도록 조기에 예방적으로,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되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와 다름이 없다고 본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제공자 중심 단순한 백화점 나열식의 단편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기존의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요한게 아니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중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빈곤 문제를 어디서 다룰 것인가. 실제로 어디서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역할을 제시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답해보아야 한다.

-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 다문화청소년들을 향한 우리 사회가 가진 상(像)은 무엇이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한국어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한국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혹은 중도입국 청소년들) 이 사회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은 달라진다. 한국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주민’으로 바라보면 한국어만 가르치면 된다. 하지만 한국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으로 바라본다면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 청소년들은 아직 다 자란게 아니다. 청소년들은 발달과정 속에 있다.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한국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즉, 이주배경으로 인한 어려움 이전에 발달과정에서 청소년 이기에 겪는 어려움이 공존하는 것이다.

사례 A) 본 기관에서 진행 중인 중도입국청소년 예비학교 ‘레인보우 스쿨’을 이용하는 A학생은 예비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들, 센터 실무자들 모두와 매우 친근하게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센터를 이용한지 1년이 되어가는 최근에서야 새아버지에게 심한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이를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를 생각해볼 기회조차 없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습득과, 새로운 가정, 새로운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하기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사례 B) B라는 친구는 한국에 입국한지 3년 만에 본 센터를 찾아왔다. 지난 3년 동안 아빠가 다른 이복동생을 돌보는 양육자로만 살아와야했기 때문이다.

- 청소년이라는 시각은 여러면에서 중요하다.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접근,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 장기적인 접근,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어 뿐만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들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부모를 만나며, 불공평한 제도에 대변해주며, 지지적으로 함께 해줄 누군가와 서비스(시스템)가 필요한 것이다.

■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제문의 함의

- 본 발제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제와 기존 전달체계의 한계, 나아가야 할 좋은 방향들을 제시해주었다. 다양하게 제시된 비판적 검토들을 종합해 봤을 때 본 토론자가 느낀 우려스러운 점은 청소년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닌 기관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들이 많다는 점과 기존의 전달체계들이나 부처간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향후 방향과 과제에 있어서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분리와 낙인방지 그리고 청소년들을 둘러싼 주변 체계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한 전략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그렇다면 이제 발제문에 제시된 10가지의 정책과제를 위 두 가지의 추진전략을 염두에 두고 누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결국 전달체계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 전달체계에 대한 몇 가지 논의점

두 발제문에서 제시한 여러 연구 성과나 기존 시스템 검토, 청소년들의 현황과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아이들을 모으기보다 되도록 찾아가는 그래서 낙인감 없이 개별화된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 둘째, 저소득 청소년들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건강, 주거, 심리정서, 경제, 진로, 부모관계, 학교적응 등 종합적 욕구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를
- 셋째,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취약한 지지체계를 확대하고 네트워킹·연대 할 수 있는
- 넷째, 지역 내 기존의 서비스들을 통합 조정하는 서비스를
- 다섯째, 다문화 청소년들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옹호하는 서비스를
- 여섯째, 일반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결국엔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라는 지지체계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며, 개인이나 가족단위에 서 가지고 있는 복합적 욕구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첫 번째 논의점으로 사례관리자가 있으면 사례관리를 하는 것인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한 착각이다.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자와 동일어가 아니다. 사례관리가 가지는 여러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뚜렷한 책임성이다. 일일이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례관리 기관’이 아닌 다른 영역의 기관에 ‘사례관리자’ 한두명을 뽑아 사례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 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다. 사례관리는 팀으로 움직여야 하며 철저한 슈퍼비전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항상 예산절감의 이유로 기존 체계에 사례관리 담당자만 뽑아놓고 사례관리를 한다고 말하는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두 번째 논의점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것인가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실천가에게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합의된다면, 기존의 다른 체계에 사업비만 추가로 주면서 다문화청소년을 품고 가라고 하는 것 또한 모순이라고 본다. 사실상 대부분의 조직들은 내부적으로 인력이 로테이션 되기도 하고 수시로 입.퇴사가 이루어진다. 기관 전체가 관련 전문성과 진정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해당 실무자의 조직 내 Rotation이나 퇴사를 통해 그나마의 전문성 또한 유실되어 버리고 이는 서비스 질이 하락됨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

세 번째 논의점으로 통합의 관점에서 별도의 전달체계는 불필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종종 통합의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제공자 중심에서 일괄적으로 그 필요성과 시기를 결정해버리곤 한다.

통합은 당사자인 그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동안 일반 청소년, 빈곤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가 돌이켜보면 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대상이 ‘청소년’이었다고 단언한다. 그만큼 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시선과 그에 따른 지원 및 전달체계는 취약했고 다문화 청소년들은 더욱 그러했다. 이는 첫 번째 발제문에도 있듯이 다문화 청소년의 수 자체가 적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아이들은 우리사회의 성숙도와 준비도와 상관없이 자라서 청소년이 된다. 여기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조금 벗어나면 탈북 청소년들도 있다. 앞으로 이주민들의 이주 유형이 다양화 되면 그에 따른 여러 사각지대의 이주 청소년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들은 빈곤의 문제, 심리·정서 문제, 인권의 문제, 학대의 문제, 종교의 문제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의문이다.

본 토론자 역시 통합이라는 장기적 방향을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누굴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일반 청소년들이 이러한 다문화청소년들을 먼저 끌어안기는 쉽지 않다. 다문화청소년들과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일반청소년들 사이로 어떻게 함께 섞여 들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아직은 그들의 욕구와 상황들을 보다 집중해서 살피고 Incubating하며, 이들을 옹호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달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별도의 전달체계가 전문성 확보가 비효율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음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것도 비효율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것 역시 비효율이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의 전달체계가 이 논리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에게 쓰는 게 효율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특히 사람에게는 인생에게는 삶에는 무조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정한 변화와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선해야하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 정리해보면,

지역에 거점 없이 먼 거리에서 찾아가는 상담, 찾아가는 사례관리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다문화청소년들과 직면하며 함께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발제문 마지막 제안처럼 우선은 별도의 전달체계를 다문화청소년 인구가 일정 비율 이상인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제대로 된 정책과 서비스를 실행해보고 그에 대한 안정적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 센터’ 같이,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 무지개 센터라도 좋다. 전문적으로 사례관리와 상담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욕구별 사업들을 실시하는 전달체계를 일정 광역시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그 압축된 결과들이 작은 지역단위로 전달되어 역량강화 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청소년이라는 이름에 대한 이 사회의 더 많은 논의와 무게감 있는 연구와 정책제안의 기회가 보다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학교 현장의 다문화학생 지원사업의 실태

채 용 기 (부발중학교 다문화담당 교사)

1.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관련 사업 현황 및 실태

- 1) 부발중학교의 경우, 전교생 316명중 37명의 다문화학생이 있어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운영을 다문화학생의 및 일반학생들의 돌봄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학력향상과 특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10%정도는 다문화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아정체성 향상 프로그램,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학교에서도 그러하겠지만 본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이라 해도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일반학생을 포함한 전체적 운영으로 다문화 교육에 따른 차별과 역차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2) 다문화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 관리자의 인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또한 각 교과에서 다문화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여 교과교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각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 되어서 그 교과를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께서 스스로 수업연구를 하고 적용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문화 관련 교재 및 각 교과에서의 다양한 다문화 교육 지도안 개발이 부족한 듯합니다.

2.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담당 교사로서 애로사항

- 1) 다문화 교육 담당자가 매우 자주 바뀌어 일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습니다. 다문화 담당을 4년째 지속해 오고 있는데 인근 학교와 다른 지역의 담당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신규발령을 받은 사람이 담당자가 되는 경우, 전입을 오자마자 지역이나 해당학교의 다문화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담당을 맡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보다는 다문화 교육이 기피업무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학생부의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방과후의 돌봄교사가산점, 청소년 단체의 가산점, 발명, 영재교육의 가산점 등 다른 부서의 일에 비해서 절대 쉽거나 업무가 적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담당자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에 다문화 중점학교 선정(보통 각 시군에 1~2곳)시부터 담당자 업무 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세월호 사건이후 학교 밖에서의 체험활동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하는 담당자들이 많았습니다. 안전문제와 결부되다 보니 밖에 나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는데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라던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재, 유적지 탐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외부 체험을 할 기회가 줄어들다보니 현장감 있는 풍부한 교육적 체험이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학교의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체험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리자, 담당자, 일반교사의 전문성신장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확대 및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확대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동영상 강의 및 직무연수, 심화연수 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좀 더 다채로운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으로 관리자를 위한 연수, 다문화 컨설팅단을 위한 연수, 담당자를 위한 연수, 그리고 일반교사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 등, 연수 및 교재의 개발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다문화 관련 교사 연구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다문화 관련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심화되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수행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지역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발중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시골 외곽에 소외된 학생들이 많다 보니 한국인 가정의 학생들 중에서도 학업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즉 성적이라든가 가정환경 등이 다문화가정의 학생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서열화 되지 않으며, 다문화 가정의 학생 중에서도 한국인 가정의 학생들보다 잘 하는 분야도 있고 노력에 의해 성적이나 특기능력 등이 앞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고 해도 친구들 사이에서 존중받거나 높이 평가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대도시지역, 특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을 들여다보면 학생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이미 서열화 되어 있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성취가 한국인 가정의 학생들보다 뛰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누적되다보면 학생들도 눈치껏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류가 생기게 되고 그 장벽을 넘어서기가 어렵고 주눅이 들며 친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적응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2)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남편의 가치관과 안목이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합니다.(주도권이 주로 한국인 남편 쪽에 있는 경우, 부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부가 경제활동에 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다문화센터라든가 다문화거점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대도시 지역보다 시골지역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지의 분포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시간과 더불어서 교통편의 시설에의 접근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 사람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3)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된 생각, 즉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간을 살펴보면 사회에서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결국은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밀접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어른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활동들(매스컴과 온라인 등의 콘텐츠), 경제적 차이로 인한 차별과 왜곡된 생각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어른들과 청소년들... 서로 서로 연쇄된 체인과 같이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의 인식과 편견,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각, 공동체의 소중함, 걸모습이나 환경을 넘어서 존재의 소중함 등에 대한 깨우침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Aileen C. Park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위원)

한국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교육자로서 이 포럼에 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에 관하여 제 의견을 밝히기 전에 이 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이자스민 의원님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직위원회와 참여 연구기관 및 단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고 놀라우세요.

한국에서 사는 좋은 점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Changes)와 변용(transformations)에 대한 빠른 전개입니다. 다문화 사회로 변용되어가면서 한국은 다문화 역사를 지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좋은 제도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제안, 토론, 비판의 과정을 거치며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문화 정책을 되돌아보고 한국 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원들 특히 학교에서 청소년 들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다문화 제도에 대한 활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저로서는 귀빈 여러분께서 제시하시는 의견들 혹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어린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와 부모들의 교육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범주, 신념과 언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현장에 계신 교사들 대부분이 그들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고정관념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Gay, 2010). 반면에 일부 교사들은 그들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또 그들 학생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은 선생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사들이 그들 신념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지라도 교사가 자기 학생 모두를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기만

하면 교사들의 따스한 마음이 교실의 모든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류 사회로의 동화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사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동화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교사들은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아직도 한국 사람처럼 못 하나요?” 라는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입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껴안기(허그)를 많이 해요. 한국에선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랍니다. 껴안기(허그)하면 안돼요.” 아이의 담임 선생님의 이러한 말은 저로 하여금 언어에 있어서 두번째 관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저는 학기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특별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2013년 6월에는 이주 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마지막 봄학기 전문가 양성과정에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에서 이주한 강사였고, 참여자 대부분은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다문화 교육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간 사람들이 받았던 관련 강의나 다문화 가족과의 교류 경험 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로 어렵게 사는 다문화 가정 이야기처럼 슬픈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선생님이 “사실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한국인 학생들보다...” 하면서 긍정적인 사례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라니, 그럼 다문화 학생이라고 불리는 우리 아들은 한국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한 달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귀갓길에 ‘영화<...>오디션 공고’ 라는 광고 쪽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다문화 가정의 형제** 중 형은 9세~11세 남자 어린이여야 하고 (...) 주인공 형의 친구로 등장하는 아이도 역시 8세~11세 사이의 **한국인 남자 어린이**로 (...)’ 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대상

8세에서 11세 사이의 **다문화 가정 남자 어린이**와 **한국인 남자 어린이**’ 라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다문화 사람과 한국인’이라는 구분 속에서는 ‘순수’ 혈통의 한국인으로 이뤄진 ‘우리’ 한국인이라는 계층이 생겨나고,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은 그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정식 법률 용어입니다. 따로 대체할 말도 없으니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문화 엄마’ ‘다문화 어린이’ ‘다문화 남편’이라 부릅니다. 한국인이란 말 대신에요. 발붙이고 사는 곳에서 늘 그렇게 구분돼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한국인은 그리고 다문화는 뭔가요? 둘은 아예 다른 말인가요? 아닙니다. 둘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도 속 시원하게 답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책 만들 때 적어도 단어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말이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그 사람을 분류할 때 쓰인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하는 서울 마포 지역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는 참여 대상을 다문화 가족과 ‘비 다문화’ 가족으로 나눕니다. 제가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정부기관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표현도 완전히 가치중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문화 대 한국인’ 구조가 아니라 새롭게 느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2011년 다문화인식개선 공모전 창작동화부문 당선작 중 하나인 <까만 한국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열 살 난 아들과 같이 이 책의 삽화를 보았을 때 제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 아이들 셋은 까만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이 애들은 나빠요!”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애들이 원래 나쁜 아이들은 아니라고 생각해. 만약 너하고 엄마, 그리고 아빠가 이 아이들에게 ‘남을 괴롭히는 일은 나쁜 일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둘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피부가 까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음…더러운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까만 한국인>은 무섭고 자극적인 책입니다. 지도해주는 어른 없이 아이 혼자 읽는다면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깨우치고, 아이들이 다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우려면, 기본적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과 조화로운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까만 한국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색깔에 매우 큰 의미를 두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에 대해 가르치면서 색깔을 잘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색깔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해서도 응용해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검정색은 무조건 더럽다, 나쁘다는 인식은 사물과 사람을 이해하는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이 나쁜 것이지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까만 한국인이나, 다문화 학생, 다문화 어린이, 다문화 가족, 비 다문화하고 오늘 발표에서도 나온 일반 패널, 다문화 패널 같은 용어들은 각각 따로 쓰면 문제가 없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다른 단어와 같이 쓰거나 특정한 맥락 안에서 쓰면 차별적이거나 다문화 학생이 한국의 비시민처럼 이해되는 상황이 생기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딜레마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문화보다는 시민권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일화에서처럼 문화적 배경의 다름을 표현하고 싶으면 ‘다문화’ 학생과 ‘우리 한국인’ 학생이라고 학생에 초점을 맞춰 얘기하기보다 부모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다른 자리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인 쇄 2014년 11월 5일

발 행 2014년 11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노 혁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